

碩士學位論文

濟州市 中·高等學生들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 龜 河

2000 年 8 月

濟州市 中·高等學生들의 價値觀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 年 6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金 龜 河

金龜河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 年 7 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초록>

제주시 중·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김 구 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항 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함으로써 청소년의 제반 특징을 이해하며 학생들에게는 자기 이해를 돕고 교사와 부모들에게는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지도와 교과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개인생활 영역과 가정생활 영역, 그리고 사회생활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시 지역에서 483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으로 '인격'이 42.4%로 가장 높으며 '정직'과 '성실'이 37.9%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결과에서는 '덕망과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49.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신체적 건강'(29.0%)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에서는 '대학교'가 50.1%로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는 3.5%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하여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높다.

직업선택의 기준과 조건에서는 '장래성'과 '자기 발전성'이 6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안정성'과 '사회적 기여도' 및 '보람'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64.4%이상은 가정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불만을 느끼는 경우는 15.6% 정도이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순종한다'가 64.4%로 가장 높으며,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가 6.2%이다. 그러나 '대체로 반항한다'도 9.7%나 되었다.

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조사결과 우리사회의 건전성이 '매우 퇴폐적'이라는 반응이 15.5%이며, '다소 퇴폐적'이다가 60.9%로서 전반적으로는 퇴폐적이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 사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성취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기노력'이 42.4%로 가장 높고 '연줄배경'(18.0%), '개인능력'(16.8%)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출세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다.

청소년 문제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결과에서는 ‘약물복용’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반항과 거부감’(23.4%)과 ‘폭력가담’(20.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개인 생활 영역에서 삶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격, 그리고 정직과 성실을 중요조건으로 의식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경제적 부유함보다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바라고 있다.

둘째, 직업에 대한 기준으로서 자기 계발과 장래 발전성을 가장 중요한 선택준거로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아 대학이상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남학생은 사회적 출세와 돈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학생은 자기계발과 자아성취를 들고 있다.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가정에 대한 만족도와 부모에 순종의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부모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는 무조건 순종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순종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자녀교육태도에 대해서는 권위적이라는 인식보다는 민주적이면서도 과잉 보호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에게서 더 잘 나타났다.

넷째, 오늘날 우리 사회현상과 당면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대체로 퇴폐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당면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치부패 현상을 교육입시제도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성세대의 불만스러운 것으로 권위주의를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으며, 현대의 황금만능주의가 사회안정을 해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경제일반에 대한 가치로서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경제문제로서 빈부의 격차를 꼽았으며, 경제적 부를 축적한 재벌들에 대해서는 자기능력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다음으로 연줄 및 배경을 인식함으로써 사회현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여섯째, 청소년들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약물복용, 반항과 거부감, 폭력 행위 가담을 지적하고 있다 약물복용의 문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와 학교성적을 당면문제로 나타난 결과와 연계시켜 볼 때, 청소년기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반항적인 특징과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 의식이 학교 공부라는 강박관념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시 중·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관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교육기관, 매스컴을 통해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관련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6
1. 가치관의 개념	6
2. 청소년기의 본질과 특성	8
III. 연구의 방법	17
1. 조사 도구	17
2. 조사대상 및 실시	18
3. 자료 처리	19
IV. 분석결과와 논의	20
1. 개인생활 영역에서의 가치관	20
2.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가치관	40
3.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가치관	48
V. 요약 및 결론	74
<참고 문헌>	79
<영문 초록>	80
<부록>	82

표 차 례

<표 1> 조사도구의 구성영역 및 문항 수	17
<표 2> 질문지 실시 대상 및 회수 현황	18
<표 3> 배경변인별 자료처리 인원	18
<표 4>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21
<표 5> 가장 행복한 사람	24
<표 6> 아픈 사람을 발견했을 때	26
<표 7> 편법 및 금품요구	29
<표 8> 교육이수 정도	31
<표 9> 높은 교육 이수의 이유	33
<표 10> 직업선택의 기준	36
<표 11> 3 D 기피현상	38
<표 12> 가정생활 만족도	41
<표 13> 부모님에 대한 태도	43
<표 14> 부모의 자녀교육 태도	46
<표 15> 오늘날 사회적 건전성	49
<표 16> 오늘날 사회의 정의 공평성	52
<표 17> 심각한 사회문제	54
<표 18> 전통문화의 인식	57
<표 19> 기성세대의 불만스러운 것	59
<표 20> 금전만능 풍조에 대한 인식	62
<표 21> 부와 출세 요인	64
<표 22>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	67
<표 23>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	69
<표 24> 청소년의 당면 문제	72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근대화·서구화 등으로 일련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 각 영역의 변동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다. 서구에서도 그랬듯이 산업화 과정은 물질생활의 편리함은 가져다주었지만 불가피하게 도시화, 농촌해체,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수반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더욱이 산업화에 따르는 도시화의 전개는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되고 새로운 생활방식에 따라서 가치의식도 변하게 된다. 실용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 등 서구적 가치관이 그것이며,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사로서 사회체제의 확립을 요구하기도 한다.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변동의 여파가 크게 받는 집단이 바로 청소년이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제2의 탄생 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신체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질풍노도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에서 독립 자존하는 성인기로 이행되어 가는 과도기이며, 기존의 사회구조 어디에도 소속되기 어려운 주변 경계인의 상태이다. 또한 그들은 아동으로서 배운 역할과 도덕성을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윤리성에 접목시켜야 되는 심리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이율배반적 감정으로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회의와 자신, 절망과 희망, 열등감과 우월감 등이 교차되는 갈등의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전단계에서 이룩한 경험을 통합하고 새로운 차원의 자아를 형성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행동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간다. 이와 같은 변화와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유기체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신과 타인 및 주변환경에 대한 자기 판단과 태도를 갖게 된다.¹⁾

1)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 1

196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및 사회환경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수행에 의하여 저개발국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해 중진국 반열로 진입되었으나 그 결과로 물질주의, 편법주의, 요령주의, 금전만능주의 등 부정적인 가치관이 사회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굴절된 사회현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청소년개발원이 1997년 한·중·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90.1%)·중국(56.8%)·일본(74.1%)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한국청소년의 사회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중국청소년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 빈부의 차가 크다는 인식(한국 86.2%, 중국 70.8%, 일본 78.2%)과 권력이나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된다(한국 51.5%, 중국 39.7%, 일본 33.7%)는 병든 사회에 대한 인식이 삼국 중 가장 높았고, 일본청소년도 법대로 살면 손해(한국 53.2%, 중국 28.7%, 일본 68.7%)라는 인식이 삼국 중 가장 높아, 한국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²⁾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제반 환경들은 전례 없이 악화되었으며, 교육적으로 순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주체적인 자기조정능력과 청소년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의 전인교육과 가치의식 발달의 형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형편이다. 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 자율성 협동성을 조장하는 전인교육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단순 지식의 주입식 교육, 교사중심의 통제된 입시위주 교육으로 전락되어 있다. 또 오랫동안 학교교육에서는 사회계층 상승이동의 수단적 가치를 중시

2) 교육부(1997), 「청소년 백서」, p.256

하여 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청소년들은 건전한 가치의식이나 자아성장을 도모하기 보다 편법 요령주의이고 교수방법은 획일적이었으며, 청소년의 욕구이해나 정서함양을 소홀히 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협동보다는 경쟁, 공동생활보다는 개인적 영달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제반환경들은 전례 없이 악화되었으며 교육적으로 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가정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분리욕구와 갈등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이 시기에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모와 사회에 대한 대립적 갈등이 생기고 자아의식의 발달과 함께 독립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발달이란 관점에서 가정환경은 학교나 사회환경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생활은 교사와 학생간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유지될 때의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급에서는 구성원들이 비교적 원만하고 정서적이고 사사로우며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간관계 지향적 심리집단의 성격을 형성한다. 따라서 학교환경의 성격은 공동목표, 작업과제, 과업분담의 역할관계, 지위관계 및 상호작용관계로 작용한다.³⁾

또한 청소년기에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좁아지는데, 대체로 부모형제와 친구관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교우관계는 목적이나 형식적 구애 없이 자연발생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우정과 호감으로 결속되는 집단 구성원이다. 이는 대등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되어 청소년의 사회화와 정체감 형성의 주요작용자가 된다.⁴⁾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의 발생은 직접적인 제 요인에 있어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가치관을 밝힘으로서 청소년

3) 박용현(1981), 「학업성취의 요인」, 교육출판사, p 250

4) 고영복(1977), 「현대사회의 심리학」, 법문사, p.150.

년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관한 분석은 곧 청소년의 제반 생활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며,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학교나 가정에서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연령층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집단이며 학생문제의 대부분이 청소년 문제이다. 또한 갈수록 학생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감안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중·고등학생들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도는 급속한 관광산업의 발달로 최근에는 외래 관광객 수가 1년에 300만 명 이상이 되고, 이러한 관광산업의 발달로 전통윤리가 약화되고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풍양속도 많이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와 가치관의 갈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하므로써 청소년의 제반 특징을 이해하며 학생들에게는 자기이해를 돕고 교사와 부모들에게는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지도와 교과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제한점

심리 사회학적 발달과정에 있어 청소년기의 가치관의 발달은 청소년 이후의 발달에 기초가 됨과 아울러 청소년기 이전의 사회성 발달의 총화적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치관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청소년의 제반 특징을 이해하

고 생활지도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문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개인 생활 영역에서 가치관을 조사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힌다.

둘째,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영역에서 가치관을 조사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청소년들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힌다.

셋째, 청소년들의 사회생활 영역에서 가치관을 조사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힌다.

본 연구는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5개 학교에서 2학년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치관의 개념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철학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과학, 문화인류학, 심리학 영역에서도 연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념도 어느 한 영역에 속하지 않고 전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⁵⁾

따라서 가치 및 가치관의 개념정의도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가치관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가치관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리적인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가치와 가치관의 정의를 보면 가치와 가치관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치관을 가치보다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세구는 가치와 가치관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서 가치를 사람들이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간가치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박용현은 가치관의 공통점을 첫째, 문화적 산물이지만 이는 개인의 학습을 통해서 내면화되어 동기가 작용하고 둘째, 개인의 심리적 체계에 내면화되어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셋째,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표준·이념 내지는 신념으로서 이 이념 내지 신념은 개인의 심리적 조직을 체계화하여 행동통일을 이룩하고 안전을 가져오게 하여 사회적 통합과 안전에 극히 필요한 것이다.⁷⁾

이병주는 가치를 시비, 선악, 정답의 판단에 관련된 준거라고 할 수 있고,

5) 이병주(1990), "교과생과 학부모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6

6) 정세구(1988), 「가치·태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영문사, p. 10.

7) 박용현(1970), 「제도화 가치관의 연구」, 배영사, p125.

가치관을 개인 또는 집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우선성을 부여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고 조직화된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김인자와 황용연은 가치관의 정의 가운데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⁹⁾

첫째, 가치관은 문화적인 산물이나 개인의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되어 작용한다.

둘째, 개인의 심리적 체계 안에 내재화되어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으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셋째,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평가적 기준이다.

넷째,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심리적 조직을 체계화하여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극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김항원은 가치관은 문화적 소산으로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며 가치관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체험을 통해서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치관은 여러 가지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¹⁰⁾이라고 했다.

가치관에 대한 정의는 가치관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정의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¹¹⁾

첫째, 가치관을 세계관이나 인생관으로 보는 견해인데, 가치관을 인간의 신조, 관념, 태도,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과 가치관을 삶의 방향인 진리관으로 보는 견해가 이에 속한다.

둘째, 가치관을 도덕관이나 윤리관으로 보는 견해인데, 가치관을 선악을 판단하는 가치의식과 실천적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우세한 욕구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이에 속한다.

8) 이병주(1990), 전제서, p11

9) 김인자, 황용연(1974),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사회연구문제소, p8.

10)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p.216.

11) 김용호(1975), “한국학생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집」2,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p.443-446

마지막으로 가치관을 사회나 문화에 대한 태도 경향, 판단 경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정의한 것을 종합하면 가치관이란 개인의 인생관, 세계관, 윤리관이며, 사회나 문화의 태도경향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가치관은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가치와 가치관이 인간의 행동결정에 미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관은 그 사람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가치관 여하는 우리의 지각과 해결을 좌우하고,

셋째, 가치관 여하는 우리가 인생의 어디에서 그 만족의 의의를 얻느냐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고,

넷째, 가치관은 우리에게 가치평가의 기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관은 행동결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치관은 개인의 심리적, 정의적인 면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뜻을 갖는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가치관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치관이란 동기, 태도, 가치의 가장 포괄적인 상위의 심리적 반응의 경향으로서 사람들의 어떤 사물이나 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에 관한 필요성의 정도와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다.

2. 청소년기의 본질과 특성

청소년기의 연령범위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많이 사용한 연령은 만 12~23세로 사춘기의 시작에서부터 자율적인 정체감의 발달과 형성을 보이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¹²⁾ 청소년을 뜻하는 'Adolescence'

12) 이차선(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7

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 해당하는 말로서,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to grow up)을, 또는 성숙에로의 성장(to grow in maturity)을 의미한다.¹³⁾

성숙이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발달된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소년기란 심신 양면에 걸쳐 급격한 발달 속에 의존적인 아동에서 자립적인 성인으로 가는 전환기이며, 심리학적으로는 하나의 주어진 사회에서 아동의 행동과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구별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경계적인 상황(marginal situation)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응과제와 더불어 청소년은 자신의 정체 규명과 타인으로부터의 개체화와 개별화에 대한 모색으로 자기에 대한 탐색과 고민이 짙어지는 시기이다.¹⁴⁾

그러나 청소년기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다양한 개인차와 경험의 차이, 문화적 차이로 단계별 이동을 표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사춘기의 시작에서부터 여러 성숙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되는 성인기 이전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사춘기의 변화로 인해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이론이 없지만,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변화로 인한 적응과정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은 Hall이다. 그는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와 같은 심리적 변화는 생리의 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¹⁵⁾

사춘기(puberty)라는 용어도 청소년기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라틴어의 'pubertas' 즉 '개화'를 의미하는 뜻으로 호르몬 분비에 의하여 생식기능을 위한 신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말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문화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구분되지만, 사춘기는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특

13) 한국 청소년문제연구소(1985), 「청소년 문제와 교육」, p. 555.

14) 이자선(1998), 진계서, p. 8

15) 이춘제(1994), 「청소년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p. 167.

정에 의해 분류된다고 보았다.¹⁶⁾

사회학자인 Sebald와 심리학자인 Kuhlen은 청년기와 사춘기를 발달적인 면에서 이질적으로 보고 청년기의 도래 상한연령이 사춘기의 시기보다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뚜렷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 주된 이유로는 발달적인 측면, 즉 생리적, 신체적으로 이 시기의 종료를 객관적으로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소 구분하기가 쉬워지는데 청년기의 종료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청년기의 종료는 대체로 심리적·경제적 독립 및 성숙, 그리고 자기 결정적 성향, 성적 성숙, 사회적·직업적 적응, 부모가 되고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열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고 영향을 받는다. Clatton은 청년기를 기술적으로 사춘기와 성숙기의 중간 기간으로 정했으며, Cole는 사춘기와 청년기는 서로 동의어가 아니라고 못박고, 사춘기는 인간의 성장 과정상의 한 시기인 청년기 발달에 기초가 되는 도입시기로 해석을 했다.¹⁷⁾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기와 사춘기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사춘기는 근본적으로 청년기 포함되는 한 시기 또는 청년기의 기초가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변화는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급격하고 뚜렷하므로 제2의 탄생 기라고 부르고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주어진 사회에서 어른행동을 구분할 줄 아는 새로운 적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어중간한 상태라고 청소년기를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기와

16) 이차선(1998), 전제서 p. 8.

17) 한국청소년 문제연구소(1985), 전제서, p. 555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이며, 각 단계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 쉽게 어느 것인가를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적 성숙에서 오는 우월을 과시하여 성인세계에서 행동하려 하지만 심리적·사회적·지적인 미성숙에서 아동의 세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인간을 교육학에서는 주변적 인간이라 부른다.¹⁸⁾ 청소년기의 특성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아 정체감의 위기

아동기로부터 자아정체감이 서서히 발달되어온 그들은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더욱 발달한다. 이 시기에는 지금까지 견지했던 불변성과 연속성 및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검토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자신이 스스로를 보는 'I'보다 남들이 보아주는 'me'가 중시되며 일반화된 타인으로서의 관점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확립문제이다.¹⁹⁾

Erikson에 따르면 주관적 측면인 개인적 정체감과 객관적인 심리·사회적 정체감이 분화되고 이들의 재통합화와 구조화가 요구되는 시기가 청소년기로서 이 시기에 그들은 대개 정체감의 위기를 체험한다. 즉 그들에게 부딪치는 여러 가지 과업의 곤란과 실패, 성적 성숙으로 인한 내적 격동의 질적 양적 변화,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한 직업이나 배우자의 강요받는 선택, 경쟁적 분위기와 자기능력 등의 과제 속에서 이상적 자기개념과 실제적 자기개념간의 갈등, 포빈 수준과 현실적 상황간의 갈등 등 많은 좌절들이 그들의 정신세계 내에서 또는 현실 사회활동의 과정에서 혼란과 불안정을 노출시키는 특징을 보인다.²⁰⁾

이상과 같은 청소년기의 정체감 위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때 극복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²¹⁾

18) 최석연(1977),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p3

19) 김형태(1989), 전제서, p.17.

20)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1985), 전제서, p 145

첫째, 자신에 대한 인식의 연속성과 동일성의 확립이다. 과거와 현재의 자신 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한 자신의 모습을 확립할 때 자아 정체감이 정립된다.

둘째, 자아의 여러 국면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자아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자기의 평가와 타인의 견해, 타인에 대한 견해 및 각 분야(정치, 종교, 직업, 성 등)에서의 다양한 견해들과 차이점들을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자신의 독특성 또는 특수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심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지지를 통합해 가면서 자신의 독특성을 탐색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²²⁾

(2) 반항성

청소년기의 반항성은 주로 기성 인이나 기성사회에 대하여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며 항상 자신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주는 부모나 선생도 자기편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반항적 투사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반항성은 성장된 자아가 성인들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고 기성 인들로부터 존중받거나 성인으로서의 동등한 대우가 거부당하며 자기가치나 제도 그리고 관습을 강요당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적 또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에서는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현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역할과 특성과 사회의 기대에서 오는 압력,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 등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갑작스런 역할변화를 기대하는 성인들의 요구와 사회화 과정 속의

21) 박용현(1970), 「제도와 가치관의 연구」, p.125

22) 이차선(1998), 전제서, p.25

마찰, 역할 수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과 스트레스를 계속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²³⁾

(3) 소속에서의 이탈

심리적 이유기는 아동기부터 시작된다. 이리하여 성장되어 가는 독립성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성인들과 다른 독특한 자기의 세계를 그리게 된다. 이와 같은 시기에는 자기가치와 맞지 않는 기성가치와 제도 그리고 관습들을 강요할 때, 그들은 스스로가 있는 자기의 세계로 이탈해 간다. 이와 같은 이탈의 과정은 먼저 심리적 이탈이고 다음으로 지리적·사회적이라는 소속에서의 이탈현상으로 나타난다. 가출현상이나 방랑벽 그리고 갱(gang)집단의 형성도 여기서 출발된다.²⁴⁾

문제는 이와 같은 청소년이 소속에서의 이탈증상보다 어디로 이탈하여 어떤 악에 오염되느냐에 있다. 그들이 그리는 세계는 관념 외의 사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리적·사회적 이탈은 방랑이나 문제지대를 찾게 되고 따라서 악에 오염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4) 신체적 급변과 정서의 가변성

신체적 발육이 현저성의 원리에 지배하는 시기이다. 성적 성숙의 질적·양적 급변을 비롯하여 신장, 체중, 체력, 근육활동 등 모든 신체적 발육의 속도가 빠른 시기이다. 이와 같은 신체적 발육의 속도는 심리적 불안정을 가져오기 마련이고 정서적 가변성의 개체적의 원인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청소년기가 가장 안정된 세계 즉 안정된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오락의 장과 같은 환경을 요구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모라토리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 성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심리적,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

23) 상계서, p9

24) 한국청소년문제연구소(1985), 전계서, p146

는다는 데에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사상이나 가치관에 동일시하며, 다양한 역할을 실험적으로 해보아 자신의 사회적 선택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며 성인으로서의 자아 정체감 확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에서 가정은 자녀들의 안식처로부터 부부중심의 안식처로 변해가고, 학교는 청소년들의 즐거운 학습의 장이기보다 부모들의 욕구충족의 시험장으로 화하여 청소년들의 긴장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사회의 시설과 제도는 그 모두가 기성인 중심의 편안처가 되고 있기에 청소년들의 안식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5) 사회적 미성숙성

가정, 학교 및 교우집단이 그 주 생활환경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의 경험 반경이 좁을 뿐만 아니라 활동의 종류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 머물고 있다. 생산활동이나 수입활동과 같은 취업활동이나 사교활동의 경험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장면에는 경쟁의 폭이 좁아 현실감각이 희박하고 사회적 성숙도가 낮다. 거기에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강하여 기성사회의 제도나 관습에의 동화하는데 어렵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미성숙성은 자연 현실생활에 적지 않은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감이나 불만감도 높기 마련이다.

청소년기의 특징들은 그 모두가 발달과 발전의 잠재적 가능성인 동시에 또한 그것은 비사회적, 비타협적, 비타당성이나 반사회적 비행을 낳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청소년의 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표갑수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²⁶⁾

첫째,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권위주의와 권위의식을 싫어한다. 물론 모든 권

25) 박아청(1987),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p 99

26) 표갑수(1986), “청소년의 의식과 바람직한 청소년상,” 「사회과학 논총」, 제4집, 1986, p 52-53

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권위를 내세워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나, 그 권위가 숭복이 아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일 때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와 같은 권위에 대해서 반발한다

둘째,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가정, 사회, 학교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과밀학급의 상황에서 입시준비를 위한 지식위주의 교육과 획일적 집단교육에 의해서 자기표현의 욕구가 억압당하고 교사와의 인격적 인간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압력을 큰 심리적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 기준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믿으면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서울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리 두기를 싫어한다.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고 믿지 않으며, 어른과 아이가 자리를 구별해야 한다고도 믿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권위나 위계형식과 절차, 차별과 편견이 개재하는 인간관계는 소외와 비인간화의 원인이 된다고 느낀다.²⁷⁾

임희섭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위대한 영웅을 따르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스타를 더 좋아한다. 그들은 초인적인 것도, 비인간적인 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평범한 경험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느끼려 하는 것이다.²⁸⁾

한국 청소년문제 연구소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형식과 형식주의를 싫어한다. 즉 내용도 없이 복잡해진 「형식을 위한 형식」을 싫어한다. 그들은 사람의 지위와 예절에 의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인간 됨 즉, 사람의 값어치에 의해서 평가하려 한다.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27) 서울 청소년회관(1980), “청소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p.50.

28) 임희섭(1980), “청소년문화의 현상과 전망,”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하계호, p.19~20.

또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부모나 교사 그리고 웃어른이나 노인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약하고, 그들은 규칙이나 질서가 개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개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생활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책임감도 약하며 예의나 순결도 그렇게 생각하는 쾌락추구의 가치관을 가짐으로서 그 가치관은 발전적이거나 건설적이기보다는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스포츠맨이나 연예인과 같은 인기 직종에 종사하는 인물들을 영웅시하며, 그들의 언행이나 복장을 모방하고 지나치게 유행에 민감하며 그것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다. 모든 일들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해결하려고 하며, 단순한 자기 실현이나 성취 욕의 충족보다는 사회계층의식의 문화에 민감하여, 항상 어떤 사회계층의 지도적 위치를 점유하기를 바라고 있다.²⁹⁾

29) 한국 청소년문제 연구소(1985), 전제서, p. 269.

III. 연구의 방법

1. 조사 도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최운실이 제작 활용한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도구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역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청소년의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생활(인생관, 행복의 조건, 이타심, 편법의 사용)과 교육 및 직업(교육기대 수준, 직업 선택)에 관한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가정에 대한 만족도와 부모에 대한 가치관 등을 조사하였다.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사회현상(사회의 정의, 사회문제, 기성세대관, 전통문화관)과 경제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질문지의 유형은 선택형을 중심으로 하고 질문지의 영역별 내용과 문항 수는 <표 1>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배경조사 문항 6개를 포함하여 모두 2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영역 및 문항 수

영역	질문 내용	문항수
개인 생활	인생관, 행복의 조건, 이타심, 편법의 사용, 교육기대수준, 직업의 선택	8
가정 생활	가정에 대한 만족도, 부모에 대한 태도,	3
사회 생활	사회의 정의, 사회문제, 기성세대관, 전통문화관, 경제문제, 청소년 문제	10
계		21

2. 조사대상 및 실시

연구대상은 제주시 지역의 중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4개교 총 8개 학교를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였다. 각 학교별로는 2학년에 재학 중인 2개 학급을 선정하여 총계 16개 학급 640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 1월 6일 사이에 실시 회수하였으며 질문지 실시 방법은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각 학교 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표 2> 질문지 실시 대상 및 회수 현황

구 분	실시 대상 수		회수		회수율(%)
	남	여	남	여	
중학교	150	155	135	150	94.0
고등학교	180	155	172	150	96.1
계	330	310	307	300	95.0

<표 3> 배경변인별 자료처리 인원

배경 변인	특 성	사례수(명)	변인구성비(%)	계
성 별	남	238	238	483
	여	245	245	
학 교	중학교	218	218	483
	고등학교	265	265	
생활 정도	상	41	41	483
	중	416	416	
	하	26	26	
보호자 학력	중 졸	55	55	483
	고 졸	241	241	
	대 졸	153	153	
	대학원졸	34	34	
보호자 직업	농업	46	46	483
	공업	16	16	
	상업	75	75	
	자영	97	97	
	공무원	106	106	
	회사원	75	75	
	기타	68	68	

질문지의 조사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회수율은 총 640부를 배부하여 607부를 회수(95.0%)하였다. 표집된 607부 중 질문지의 문항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과 한 문항에 둘 이상 선택한 것(124 명)들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실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표집 수는 483명이었다. 따라서 최종적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표집의 배경변인 수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거친 후 SPSS/PC+를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전체와 배경 변인별로 문항별 집계를 하고, 이를 백분비로 산출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경향을 살펴보았다. 배경 변인별 분석은 성별, 학교별, 생활정도, 보호자 학력, 보호자 직업별로 구분하였다.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의 차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본 설문지 항목 대부분이 서열변인보다는 명명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에 적절한 통계적 방법인 카이제곱(χ^2)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유의도 수준은 $P<.001$, $P<.01$, $P<.05$ 에서 살펴보았다.

IV. 분석결과와 논의

1. 개인생활영역에서의 가치관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결과를 개인생활영역과 가정생활영역, 그리고 사회생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생활과 교육 및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일반생활에서의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과 행복의 조건, 이타심, 교육의 기대 수준, 직업선택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살펴보았다.<표 4>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42.4%의 학생이 살아가는데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의 37.9%가 ‘정직과 성실’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권력(8.7%)’, ‘학식(5.8%)’, ‘명예(4.8%)’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학생들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정직과 성실’이 47.7%, ‘인격’이 3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들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격’을 50.6%, ‘정직과 성실’이 29.8% 순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차이를 보

<표 4>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명(%)

구 분		권력	명예	학식	인격	정직·성실	사회봉사	계	df	χ^2
성별	남학생	26 (10.9)	14 (5.9)	14 (5.9)	94 (39.5)	89 (37.4)	1 (0.4)	238 (100)	5	4.914
	여학생	16 (6.5)	9 (3.7)	14 (5.7)	111 (45.3)	94 (38.4)	1 (0.4)	245 (100)		
학교	중학교	18 (8.3)	9 (4.1)	14 (6.4)	71 (32.6)	104 (47.7)	2 (0.9)	218 (100)	5	22.359***
	고등학교	24 (9.1)	14 (5.3)	14 (5.3)	134 (50.6)	79 (29.8)	0 (0.0)	265 (100)		
생활정도	상	5 (12.2)	5 (12.2)	2 (4.9)	11 (26.8)	18 (43.9)	0 (0.0)	41 (100)	10	21.910*
	중	35 (8.4)	16 (3.8)	26 (6.3)	179 (43.0)	159 (38.2)	1 (0.2)	416 (100)		
	하	2 (7.7)	2 (7.7)	0 (0.0)	15 (57.7)	6 (23.1)	1 (3.8)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6 (10.9)	4 (7.3)	1 (1.8)	22 (40.0)	21 (38.2)	1 (1.8)	55 (100)	15	13.421
	고졸	17 (7.1)	13 (5.4)	17 (7.1)	102 (42.3)	92 (38.2)	0 (0.0)	241 (100)		
	대졸	17 (11.1)	3 (2.0)	8 (5.2)	66 (43.1)	58 (37.9)	1 (0.7)	153 (100)		
	대학원졸	2 (5.9)	3 (8.8)	2 (5.9)	15 (44.1)	12 (35.3)	0 (0.0)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2 (4.3)	4 (8.7)	2 (4.3)	19 (41.3)	19 (41.3)	0 (0.0)	46 (100)	30	26.531
	공업	3 (18.8)	0 (0.0)	0 (0.0)	5 (31.3)	8 (50.0)	0 (0.0)	16 (100)		
	상업	2 (2.7)	2 (2.7)	6 (8.0)	35 (46.7)	29 (38.7)	1 (1.3)	75 (100)		
	자영	8 (8.2)	5 (5.2)	6 (6.2)	42 (43.3)	35 (36.1)	1 (1.0)	97 (100)		
	공무원	6 (5.7)	4 (3.8)	7 (6.6)	49 (46.2)	40 (37.7)	0 (0.0)	106 (100)		
	회사원	10 (13.3)	4 (5.3)	5 (6.7)	27 (36.0)	29 (38.7)	0 (0.0)	75 (100)		
	기타	11 (16.2)	4 (5.9)	2 (2.9)	28 (41.2)	23 (33.8)	0 (0.0)	68 (100)		
계		42 (8.7)	23 (4.8)	28 (5.8)	205 (42.4)	183 (37.9)	2 (0.4)	483 (100)		

*** $p < .001$, * $p < .05$

이고 있다 생활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43.9%가 '정직과 성실'을 꼽고 있는데 반해, 자신의 생활정도를 중층이나 하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인 경우는 '인격'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성별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남학생의 39.5%가 '인격'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다음으로 '정직과 성실'을 37.4%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학생은 조사대상의 45.3%가 '인격', 다음으로 '정직과 성실'이 38.4%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인 것에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 '인격', 그 다음으로 '정직과 성실'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의 보호자 직업에 관계없이 대체로 그대로 반영되어 '인격'이 '정직과 성실'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호자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에는 '정직과 성실'이 38.7%로 '인격'의 36.0%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 급별과 생활정도에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 정도(학교 급별),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체적인 결과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80.3%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인격적·윤리적 요인(인격, 정직과 성실)을 지적하는 것은 조사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중요한 사회화의 기관인 학교와 더불어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정과 현실사회를 통해서 피드백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2) 가장 행복한 사람의 기준에 대한 가치관 분석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

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5>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 중에서 49.3%의 학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덕망과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29.0%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19.7%),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른 차이가 비율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학생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43.1%),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31.7%),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23.9%) 순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54.3%),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26.8%),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1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5$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한 차이도 전체적인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생활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46.3%가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각각 26.8%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신의 생활정도를 중층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49.8%,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29.1%),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18.8%),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생활정도를 하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에는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46.2%),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30.8%),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23.1%),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장 행복한 사람

단위 : 명(%)

구 분		경제적 부 유	사회적 지 위	인격적 존 경	신체적 건 강	계	d.f	χ^2
성 별	남학생	55 (23.1)	5 (2.1)	119 (48.6)	59 (24.8)	238 (100)	3	5.725
	여학생	40 (16.3)	5 (2.0)	119 (50.0)	81 (33.1)	245 (100)		
학 교	중학교	52 (23.9)	3 (1.4)	94 (43.1)	69 (31.7)	218 (100)	3	8.492*
	고등학교	43 (16.2)	7 (2.6)	144 (54.3)	71 (26.8)	265 (100)		
생 활 정 도	상	11 (26.8)	0 (0.0)	19 (46.3)	11 (26.8)	41 (100)	6	3.250
	중	78 (18.8)	10 (2.4)	207 (49.8)	121 (29.1)	416 (100)		
	하	6 (23.1)	0 (0.0)	12 (46.2)	8 (30.8)	26 (100)		
보 호 자 학 력	중졸	14 (25.5)	2 (3.6)	27 (49.1)	12 (21.8)	55 (100)	9	11.210
	고졸	44 (18.3)	2 (0.8)	124 (51.5)	71 (29.5)	241 (100)		
	대졸	30 (19.6)	6 (3.9)	67 (43.8)	50 (32.7)	153 (100)		
	대학원졸	7 (20.6)	0 (0.0)	20 (58.8)	7 (20.6)	34 (100)		
보 호 자 직 업	농업	6 (13.0)	0 (0.0)	23 (50.0)	17 (37.0)	46 (100)	18	14.923
	공업	7 (43.8)	0 (0.0)	4 (25.0)	5 (31.3)	16 (100)		
	상업	13 (17.3)	2 (2.7)	39 (52.0)	21 (28.0)	75 (100)		
	자영	18 (18.6)	2 (2.1)	50 (51.5)	27 (27.8)	97 (100)		
	공무원	18 (17.0)	2 (1.9)	54 (50.9)	32 (30.2)	106 (100)		
	회사원	16 (21.3)	2 (2.7)	40 (53.3)	17 (22.7)	75 (100)		
	기타	17 (25.0)	2 (2.9)	28 (41.2)	21 (30.9)	68 (100)		
계		95 (19.7)	10 (2.1)	238 (49.3)	140 (29.0)	483 (100)		

* $p < .05$

그 외 성별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 남학생의 48.6%가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24.8%),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23.1%)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학생은 50.0%가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3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이라고 응답한 학생인 경우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49.1%),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25.5%),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21.8%)순으로 응답했다. 보호자 학력이 고졸, 대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력에 관계없이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순으로 응답했다. 보호자 학력이 대학원졸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에는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58.8%),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20.6%),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20.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의 직업에 있어서는 그 직업에 관계없이 ‘덕목과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3) 아픈 사람을 발견했을 때의 행동

“급한 불일을 보러 가던 중 길가에서 아파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6>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35.2%의 학생이 ‘무조건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34.2%가 ‘연락이나 해준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 내용으로는 ‘모른 척 한다’(27.5%), ‘돕지 않는다’(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표 6> 아픈 사람을 발견했을 때

단위 : 명(%)

구 분		답 지 않은다	연락한다	무조건 답는다	모른 척 한다	계	d.f	χ^2
성별	남학생	11 (4.6)	79 (33.2)	91 (38.2)	57 (23.9)	238 (100)	3	7.025
	여학생	4 (1.6)	86 (35.1)	79 (32.2)	76 (31.0)	245 (100)		
학교	중학교	7 (3.2)	69 (31.7)	73 (33.5)	69 (31.7)	218 (100)	3	3.521
	고등학교	8 (3.0)	96 (36.2)	97 (36.3)	64 (24.2)	265 (100)		
생활정도	상	6 (14.6)	14 (34.1)	15 (36.6)	6 (14.6)	41 (100)	6	35.079***
	중	6 (1.4)	144 (34.6)	142 (34.1)	124 (29.8)	416 (100)		
	하	3 (11.5)	7 (26.9)	13 (50.0)	3 (11.5)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1 (1.8)	15 (27.3)	22 (40.0)	17 (30.9)	55 (100)	9	11.148
	고졸	4 (1.7)	88 (36.5)	85 (35.3)	64 (26.6)	241 (100)		
	대졸	10 (6.5)	49 (32.0)	51 (33.3)	43 (28.1)	153 (100)		
	대학원졸	0 (0.0)	13 (38.2)	12 (35.3)	9 (26.5)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1 (2.2)	12 (26.1)	21 (45.7)	12 (26.1)	46 (100)	18	20.106
	공업	0 (0.0)	3 (18.8)	8 (50.0)	5 (31.3)	16 (100)		
	상업	5 (6.7)	28 (37.3)	24 (32.0)	18 (24.0)	75 (100)		
	자영	4 (4.1)	41 (42.3)	32 (33.0)	20 (20.6)	97 (100)		
	공무원	1 (0.9)	35 (33.0)	41 (38.7)	29 (27.4)	106 (100)		
	회사원	3 (4.0)	22 (29.3)	22 (29.3)	28 (37.3)	75 (100)		
	기타	1 (1.5)	24 (35.3)	22 (32.4)	21 (30.9)	68 (100)		
계		15 (3.1)	165 (34.2)	170 (35.2)	133 (27.5)	483 (100)		

*** $p < .001$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아픈 사람을 발견했을 때의 행동으로 ‘무조건 돕는다’(33.5%), ‘연락이나 해준다’, ‘모른 척 한다’가 동일하게 31.7%, ‘돕지 않는다’(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무조건 돕는다’(36.3%), ‘연락이나 해준다’(36.2%), ‘모른 척 한다’(24.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인 경우 ‘무조건 돕는다’(36.6%), ‘연락이나 해준다’(34.1%)로 나타났고, 중층인 경우 ‘연락이나 해준다’(34.6%), ‘무조건 돕는다’(34.1%)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하층인 경우 ‘무조건 돕는다’(50.0%), ‘연락이나 해준다’(26.9%)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도별로는 유의 수준 $p<.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38.2%가 ‘무조건 돕는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연락이나 해준다’(33.2%), ‘모른 척 한다’(23.9%)로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연락이나 해준다’(35.1%), ‘무조건 돕는다’(32.2%), ‘모른 척 한다’(31.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졸인 경우 ‘무조건 돕는다’(40.0%), ‘모른 척 한다’(30.9%)로 나타났고, 고졸인 경우 ‘연락이나 해준다’(36.5%), ‘무조건 돕는다’(35.3%)로 나타났으며, 대졸인 경우 ‘무조건 돕는다’(33.3%), ‘연락이나 해준다’(32.0%) , 대학원졸인 경우 ‘연락이나 해준다’(38.2%) , ‘무조건 돕는다’(35.3%)의 순으로 나타나 중졸·대학원졸과 고졸·대졸과의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직업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업별로 농·공·공무원인 경우에는 ‘무조건 돕는다’를 꼽고 있으나 다음으로 ‘모른 척 한다’와 ‘연락이나 해준다’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상업·자영인 경우에는 ‘연락이나 해준다’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무조건 돕는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이 회사원인 경우에는 ‘모른 척 한다’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락이나 해준다’와

‘무조건 돕는다’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4) 편법 및 금품요구를 받았을 때의 행동에 대한 분석

“만일 상대방이 부탁 받은 일을 들어주는 대가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하는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48.4%의 학생이 ‘상황에 따라 편법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24.2%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절대로 편법은 쓰지 않는다’(22.4%), ‘어느 경우는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다’(5.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편법 및 금품요구를 받았을 때의 행동으로 ‘편법도 가능하다’(45.9%), ‘모르겠다’,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1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편법도 가능하다’(50.6%),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27.5%), ‘모르겠다’(19.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인 경우 ‘편법도 가능하다’(53.7%),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19.5%),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다’(12.2%)로 나타났고, 중층인 경우 ‘편법도 가능하다’(47.4%), ‘모르겠다’(25.5%)로 나타났으며, 하층인 경우 ‘편법도 가능하다’(57.7%),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23.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50.0%가 ‘편법도 가능하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모르겠다’(22.7%),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20.6%)로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편법도 가능하다’(46.9%), ‘모르겠다’(25.7%),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2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편법 및 급품요구

단위 : 명(%)

구 분		편법 사용	편법 가능	편법 부정	모르겠다	계	d.f	χ^2
성별	남학생	16 (6.7)	119 (50.0)	49 (20.6)	54 (22.7)	238 (100)	3	4.253
	여학생	8 (3.3)	115 (46.9)	59 (24.1)	63 (25.7)	245 (100)		
학교	중학교	16 (7.3)	100 (45.9)	35 (16.1)	67 (30.7)	218 (100)	3	19.054***
	고등학교	8 (3.0)	134 (50.6)	73 (27.5)	50 (18.9)	265 (100)		
생활정도	상	5 (12.2)	22 (53.7)	8 (19.5)	6 (14.6)	41 (100)	6	8.787
	중	19 (4.6)	197 (47.4)	94 (22.6)	106 (25.5)	416 (100)		
	하	0 (0.0)	15 (57.7)	6 (23.1)	5 (19.2)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3 (5.5)	25 (45.5)	14 (25.5)	13 (23.6)	55 (100)	9	6.499
	고졸	13 (5.4)	114 (47.3)	51 (21.2)	63 (26.1)	241 (100)		
	대졸	8 (5.2)	75 (49.0)	33 (21.6)	37 (24.2)	153 (100)		
	대학원졸	0 (0.0)	20 (58.8)	10 (29.4)	4 (11.8)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1 (2.2)	20 (43.5)	12 (26.1)	13 (28.3)	46 (100)	18	20.685
	공업	4 (25.0)	6 (37.5)	2 (12.5)	4 (25.0)	16 (100.0)		
	상업	5 (6.7)	39 (52.0)	15 (20.0)	16 (21.3)	75 (100)		
	자영	4 (4.1)	51 (52.6)	21 (21.6)	21 (21.6)	97 (100)		
	공무원	3 (2.8)	53 (50.0)	27 (25.5)	23 (21.7)	106 (100)		
	회사원	4 (5.3)	34 (45.3)	15 (20.0)	22 (29.3)	75 (100)		
	기타	3 (4.4)	31 (45.6)	16 (23.5)	18 (26.5)	68 (100)		
계		24 (5.0)	234 (48.4)	108 (22.4)	117 (24.2)	483 (100)		

*** $p < .001$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편법도 가능하다’를 우선으로 꼽고있으며, 다음으로 ‘편법부정’과 ‘모르겠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직업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편법도 가능하다’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편법부정’과 ‘모르겠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업인 경우에는 ‘편법도 가능하다’(37.5%)를 우선으로 꼽고 있다.

5) 교육이수의 수준

“여건이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본다 <표 8>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50.1%의 학생이 ‘대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35.0%가 ‘대학원 박사’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대학원 석사’(11.4%), ‘고등학교’(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학생들은 여건이 허락했을 때 교육이수의 정도에서 ‘대학교’(53.2%), ‘대학원박사’(31.2%), ‘대학원석사’(9.6%), ‘고등학교’(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여건이 허락했을 때 교육이수의 정도에서 ‘대학교’(47.5%), ‘대학원박사’(38.1%), ‘대학원석사’(12.8%), ‘고등학교’(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 여건이 허락했을 때 교육의 이수 정도에 대해 생활정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나 경우에 43.9%가 ‘대학원박사’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

<표 8> 교육이수 정도

단위 : 명(%)

구 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계	d.f	χ^2
성별	남학생	11 (4.6)	136 (57.1)	22 (9.2)	69 (29.0)	238 (100)	3	12.977**
	여학생	6 (2.4)	106 (43.3)	33 (13.5)	100 (40.8)	245 (100)		
학교	중학교	13 (6.0)	116 (53.2)	21 (9.6)	68 (31.2)	218 (100)	3	10.218*
	고등학교	4 (1.5)	126 (47.5)	34 (12.8)	101 (38.1)	265 (100)		
생활정도	상	3 (7.3)	16 (39.0)	4 (9.8)	18 (43.9)	41 (100)	6	5.766
	중	13 (3.1)	211 (50.7)	50 (12.0)	142 (34.1)	416 (100)		
	하	1 (3.8)	15 (57.7)	1 (3.8)	9 (34.6)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1 (1.8)	31 (56.4)	5 (9.1)	18 (32.7)	55 (100)	9	15.543
	고졸	6 (2.5)	132 (54.8)	27 (11.2)	76 (31.5)	241 (100)		
	대졸	8 (5.2)	71 (46.4)	18 (11.8)	56 (36.6)	153 (100)		
	대학원졸	2 (5.9)	8 (23.5)	5 (14.7)	19 (55.9)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1 (2.2)	25 (54.3)	6 (13.0)	14 (30.4)	46 (100)	18	18.660
	공업	2 (12.5)	9 (56.3)	0 (0.0)	5 (31.3)	16 (100)		
	상업	0 (0.0)	42 (56.0)	8 (10.7)	25 (33.3)	75 (100)		
	자영	4 (4.1)	48 (49.5)	11 (11.3)	34 (35.1)	97 (100)		
	공무원	2 (1.9)	45 (42.5)	13 (12.3)	46 (43.4)	106 (100)		
	회사원	4 (5.3)	34 (45.3)	10 (13.3)	27 (36.0)	75 (100)		
	기타	4 (5.9)	39 (57.4)	7 (10.3)	18 (26.5)	68 (100)		
계		17 (3.5)	242 (50.1)	55 (11.4)	169 (35.0)	483 (100)		

** $p < .01$, * $p < .05$

음으로 39.0%가 ‘대학교’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생활 정도가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50.7%가 ‘대학교’(34.1%)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생활정도가 하층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대학교’(57.7%), ‘대학원박사’(34.6%), ‘대학원석사’(3.8%), ‘고등학교’(3.8 %)로 나타나 상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중층· 하층에 해당되는 학생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57.1%가 ‘대학교’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여학생은 43.3%로 여학생이 조금 낮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중졸과 고졸·대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학원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55.9%가 대학원 박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교육이수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대학교 보다 대학원박사의 비율이 43.4%로 약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직업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 따라 여건이 허락했을 때 교육이수의 정도에 대한 생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정도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여건이 허락했을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교육의 이수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높은 교육이수의 이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9>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26.3%학생이 ‘자아실현’이라고

<표 9> 높은 교육 이수의 이유

단위 : 명(%)

구 분		출세	직장	돈	자아실현	결혼	자기계발	계	d.f	χ^2
성별	남학생	60 (25.2)	28 (11.8)	40 (16.8)	57 (23.9)	3 (1.3)	50 (21.0)	238 (100)	5	8.809
	여학생	44 (18.0)	32 (13.1)	29 (11.8)	70 (28.6)	7 (2.9)	63 (25.7)	245 (100)		
학교	중학교	42 (19.3)	28 (10.6)	36 (16.5)	56 (25.7)	3 (1.4)	49 (22.5)	218 (100)	5	5.081
	고등학교	62 (23.4)	28 (10.6)	33 (12.5)	71 (26.8)	7 (2.6)	64 (24.2)	265 (100)		
생활정도	상	11 (26.8)	5 (12.2)	6 (14.6)	10 (24.4)	1 (2.4)	8 (19.5)	41 (100)	10	4.998
	중	87 (20.9)	54 (13.0)	60 (14.4)	107 (25.7)	8 (1.9)	100 (24.0)	416 (100)		
	하	6 (23.1)	1 (3.8)	3 (11.5)	10 (38.5)	1 (3.8)	5 (19.2)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15 (27.3)	10 (18.2)	5 (9.1)	14 (25.5)	0 (0.0)	11 (20.0)	55 (100)	15	15.393
	고졸	46 (19.1)	32 (13.3)	41 (17.0)	67 (27.8)	5 (2.1)	50 (20.7)	241 (100)		
	대졸	38 (24.8)	16 (10.5)	17 (11.1)	38 (24.8)	4 (2.6)	40 (26.1)	153 (100)		
	대학원졸	5 (14.7)	2 (5.9)	6 (17.6)	8 (23.5)	1 (2.9)	12 (35.3)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11 (23.9)	6 (13.0)	7 (15.2)	13 (28.3)	0 (0.0)	9 (19.6)	46 (100)	30	30.101
	공업	3 (18.8)	2 (12.5)	5 (31.3)	2 (12.5)	1 (6.3)	3 (18.8)	16 (100)		
	상업	20 (26.7)	7 (9.3)	9 (12.0)	15 (20.0)	0 (0.0)	24 (32.0)	75 (100)		
	자영	22 (22.7)	16 (16.5)	9 (9.3)	29 (29.9)	1 (1.0)	20 (20.6)	97 (100)		
	공무원	23 (21.7)	10 (9.4)	13 (12.3)	27 (25.5)	4 (3.8)	29 (27.4)	106 (100)		
	회사원	15 (20.0)	9 (12.0)	10 (13.3)	24 (32.0)	2 (2.7)	15 (20.0)	75 (100)		
	기타	10 (14.7)	10 (14.7)	16 (23.5)	17 (25.0)	2 (2.9)	13 (19.1)	68 (100)		
계		104 (21.5)	60 (12.4)	69 (14.3)	127 (26.3)	10 (2.1)	113 (23.4)	483 (100)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23.4%가 ‘자기계발’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출세’(21.5%), ‘돈’(14.3%), ‘직장’(12.4%), ‘결혼’(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학생들은 ‘자아실현’(25.7%), ‘자기계발’(22.5%), ‘출세’(19.3%), ‘돈’(16.5%), ‘직장’(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이수의 이유에서 ‘자아실현’(26.8%), ‘자기계발’(24.2%), ‘출세’(23.4%), ‘돈’(12.5%), ‘직장’(10.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 높은 교육이수의 이유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인 경우에 26.8%(11명)가 ‘출세’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아실현’(24.4%)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생활정도가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아실현’(25.7%), ‘자기계발’(24.0%), ‘출세’(20.9%)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생활정도가 하층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아실현’(38.5%), ‘출세’(34.6%), ‘자기계발’(19.2%)로 나타나 상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중층·하층에 해당되는 학생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25.2%가 ‘출세’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여학생은 28.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출세보다는 자아실현이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에 따라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중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아실현’(25.5%), ‘자기계발’(20.0%)보다 ‘출세’(26.8%)를 생각하고있으며, 고졸, 대졸, 대학원졸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교육이수의 이유가 자아실현 또는 자기계발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자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7) 직업선택의 기준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0〉 참고).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65.4%의 학생이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12.0%가 ‘보수’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안정성’(10.6%), ‘사회적 기여’(8.1%), ‘시간적 여유’(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58.7%), ‘보수’(15.6%), ‘안정성’(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70.9%), ‘보수’(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중층·하층에 관계없이 직업 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수’, ‘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70.9%), ‘보수’(9.1%)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 정도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중층·하층에 관계없이 직업 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수’, ‘안정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61.3%가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여학생은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69.4%)이고, 다음으로 ‘보수’(11.8%)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 10> 직업선택의 기준

단위 : 명(%)

구 분		보수	안정성	장래성 자기발전	사회적 기여	시간적 여유	계	d.f	χ^2
성별	남학생	29 (12.2)	28 (11.8)	146 (61.3)	24 (10.1)	11 (4.6)	238 (100)	4	4.763
	여학생	29 (11.8)	23 (9.4)	170 (69.4)	15 (6.1)	8 (3.3)	245 (100)		
학교	중학교	34 (15.6)	28 (12.8)	128 (58.7)	20 (9.2)	8 (3.7)	218 (100)	4	9.624*
	고등학교	24 (9.1)	23 (8.7)	188 (70.9)	19 (7.2)	11 (4.2)	265 (100)		
생활정도	상	9 (22.0)	6 (14.6)	20 (48.8)	5 (12.2)	1 (2.4)	41 (100)	8	9.260
	중	45 (10.8)	43 (10.3)	278 (66.8)	32 (7.7)	18 (4.3)	416 (100)		
	하	4 (15.4)	2 (7.7)	18 (69.2)	2 (7.7)	0 (0.0)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3 (5.5)	6 (10.6)	36 (65.5)	7 (12.7)	3 (5.5)	55 (100)	12	12.970
	고졸	34 (14.1)	29 (12.0)	153 (63.5)	16 (6.6)	9 (3.7)	241 (100)		
	대졸	17 (11.1)	13 (8.5)	106 (69.3)	10 (6.5)	7 (4.6)	153 (100)		
	대학원졸	4 (11.8)	3 (8.8)	21 (61.8)	6 (17.6)	0 (0.0)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2 (4.3)	8 (17.4)	31 (67.4)	3 (6.5)	2 (4.3)	46 (100)	24	30.417
	공업	6 (37.5)	2 (12.5)	6 (37.5)	1 (6.3)	1 (6.3)	16 (100)		
	상업	7 (9.3)	8 (10.7)	53 (70.7)	4 (5.3)	3 (4.0)	75 (100)		
	자영	12 (12.4)	8 (8.2)	67 (69.1)	7 (7.2)	3 (3.1)	97 (100)		
	공무원	8 (7.8)	12 (11.3)	71 (67.0)	12 (11.3)	3 (2.8)	106 (100)		
	회사원	11 (14.7)	3 (4.0)	50 (66.7)	8 (10.7)	3 (4.0)	75 (100)		
	기타	12 (17.6)	10 (14.7)	38 (55.9)	4 (5.9)	4 (5.9)	68 (100)		
계		58 (12.0)	51 (10.6)	316 (65.4)	39 (8.1)	19 (3.9)	483 (100)		

* $p < .01$

고등학생들은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70.9%), ‘보수’(9.1%), ‘안정성’(8.7%), ‘사회적 기여’(7.2%), ‘시간적 여유’(4.2%)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에 관계없이 직업선택 및 요건에 대해서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보수’를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직업에 따라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 정도,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체적인 결과에서 조사 대상학생의 65.4%가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장래성과 자기 발전성을 지적하는 것은 건전한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8) 직업선택에 있어서 3D 기피현상

“직업선택에 있어서 고되고, 힘들며, 지저분한 직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1>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31.1%의 학생이 ‘보수는 높으나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29.0%가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보수는 높으나 지저분한 일’(20.7%), ‘보수가 낮은 사무실’(1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3D 기피현상을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31.2%), ‘보수는 높으나 위험한 일’(29.8%), ‘보수가 낮은 사무실’(21.1%), ‘보수는 높으나 지저분한 일’(1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3 D 기피현상

단위 : 명(%)

구 분		보수 적음	보수 높고 위험	보수 높고 힘듦	보수 높고 지저분	계	d.f	χ^2
성별	남학생	48 (20.2)	73 (30.7)	65 (27.3)	52 (21.8)	238 (100)	3	0.976
	여학생	45 (18.4)	77 (31.4)	75 (30.6)	48 (19.6)	245 (100)		
학교	중학교	46 (21.1)	65 (29.8)	68 (31.2)	39 (17.9)	218 (100)	3	3.087
	고등학교	47 (17.7)	85 (32.1)	72 (27.2)	61 (23.0)	265 (100)		
생활정도	상	9 (22.0)	7 (17.1)	18 (43.9)	7 (17.1)	41 (100)	6	7.394
	중	79 (19.0)	135 (32.5)	116 (27.9)	86 (20.7)	416 (100)		
	하	5 (19.2)	8 (30.8)	6 (23.1)	7 (26.9)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7 (12.7)	19 (34.5)	14 (25.5)	15 (27.3)	55 (100)	9	8.842
	고졸	47 (19.5)	67 (27.8)	79 (32.8)	48 (19.9)	241 (100)		
	대졸	34 (22.2)	50 (32.7)	40 (26.1)	29 (19.0)	153 (100)		
	대학원졸	5 (14.7)	14 (41.2)	7 (20.6)	8 (23.5)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6 (13.0)	9 (19.6)	19 (41.3)	12 (26.1)	46 (100)	18	22.184
	공업	3 (18.8)	4 (25.0)	3 (18.8)	6 (37.5)	16 (100)		
	상업	13 (17.3)	31 (41.3)	20 (26.7)	11 (14.7)	75 (100)		
	자영	22 (22.7)	30 (30.9)	27 (27.8)	18 (18.6)	97 (100)		
	공무원	25 (23.6)	30 (28.3)	33 (31.1)	18 (17.0)	106 (100)		
	회사원	9 (12.0)	26 (34.7)	18 (24.0)	22 (29.3)	75 (100)		
	기타	15 (22.1)	20 (29.4)	20 (29.4)	13 (19.1)	68 (100)		
계		93 (19.3)	150 (31.1)	140 (29.0)	100 (20.7)	483 (100)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보수 높고 위험한 일’(32.1%),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27.2%), ‘보수는 높으나 지저분한 일’(23.0%), ‘보수가 낮은 사무실’(17.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나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 직업 선호의 3D 기피현상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43.9%), 다음으로 ‘보수가 낮은 사무실’(22.0%)이라고 응답하는 한편,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보수 높고 위험한 일’(32.5%), 다음으로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27.9%)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30.8%), 다음으로 ‘보수는 높으나 지저분한 일’(26.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30.7%가 ‘보수는 높으나 위험한 일’을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27.3%가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학생 역시 남학생과 동일하게 31.4%가 ‘보수는 높으나 위험한 일’을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30.6%가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 대졸, 대학원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고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직업에 따라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직업별로 농업과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수는 높으나 힘든 일’을 우선으로 꼽고 있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에 있어서 인식의 정도가 위험하고 힘든 일에 대하여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가치관

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해 가정에 대한 만족도, 부모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방식 지각을 분석하였다.

1)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분석

“현재의 가정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1>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45.8%의 학생이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20.3%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매우 만족하다’(18.4%), ‘불만족스럽다’(11.0%), ‘매우 불만족스럽다’(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현재의 가정 생활에 만족도에 있어서 ‘만족스럽다’(42.7%), ‘그저 그렇다’(23.4%), ‘매우 만족스럽다’(20.6%), ‘불만족스럽다’(8.8%), ‘매우 불만족스럽다’(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만족스럽다’(48.3%), ‘그저 그렇다’(17.7%), ‘매우 만족스럽다’(16.6%), ‘불만족스럽다’(13.2%)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내고 있으나 가정생활에 대한 의미에서 볼 때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39.0%가 ‘매우 만족스럽다’, 다음으로 36.6%가 ‘만족스럽다’라고 응답하는 한편,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47.4%가 ‘만족스럽다’, 20.7%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34.6%가 ‘만족스럽다’, 다음으로 23.1%가 ‘그저 그렇다’와 ‘불만족스럽다’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표 12>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	계	d.f	χ^2
성별	남학생	48 (20.2)	101 (42.4)	49 (20.6)	26 (10.9)	14 (5.9)	238 (100)	4	3.739
	여학생	41 (16.7)	120 (49.0)	49 (20.0)	27 (11.0)	8 (3.3)	245 (100)		
학교	중학교	45 (20.6)	93 (42.7)	51 (23.4)	18 (8.3)	11 (5.0)	218 (100)	4	6.660
	고등학교	44 (16.6)	128 (48.3)	47 (17.7)	35 (13.2)	11 (4.2)	265 (100)		
생활정도	상	16 (39.0)	15 (36.6)	6 (14.6)	0 (0.0)	4 (9.8)	41 (100)	8	43.483***
	중	71 (17.1)	197 (47.4)	86 (20.7)	50 (12.0)	12 (2.9)	416 (100)		
	하	2 (7.7)	9 (34.6)	6 (23.1)	3 (11.5)	6 (23.1)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7 (12.7)	22 (40.0)	14 (25.5)	8 (14.5)	4 (2.6)	55 (100)	12	15.719
	고졸	35 (14.5)	123 (51.0)	46 (19.1)	24 (10.0)	13 (5.4)	241 (100)		
	대졸	38 (24.8)	64 (41.8)	31 (20.3)	16 (10.5)	4 (2.6)	153 (100)		
	대학원졸	9 (26.5)	12 (35.3)	7 (20.6)	5 (14.7)	1 (2.9)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5 (10.9)	24 (52.2)	8 (17.4)	5 (10.9)	4 (8.7)	46 (100)	24	25.163
	공업	3 (18.8)	7 (43.8)	2 (12.5)	1 (6.3)	3 (18.8)	16 (100)		
	상업	11 (14.7)	40 (53.3)	13 (17.3)	7 (9.3)	4 (5.3)	75 (100)		
	자영	14 (14.4)	43 (44.3)	25 (25.8)	13 (13.4)	2 (2.1)	97 (100)		
	공무원	27 (25.5)	45 (42.5)	20 (18.9)	11 (10.4)	3 (2.8)	106 (100)		
	회사원	18 (24.0)	33 (44.0)	15 (20.0)	6 (8.0)	3 (4.0)	75 (100)		
	기타	11 (16.2)	29 (42.6)	15 (22.1)	10 (14.7)	3 (4.4)	68 (100)		
계		89 (18.4)	221 (45.8)	98 (20.3)	53 (11.0)	22 (4.5)	483 (100)		

*** $p < .001$

자신의 생활정도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42.4%가 ‘만족스럽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20.6%가 ‘그저 그렇다’, 20.2%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학생 역시 남학생과 동일하게 49.0%가 ‘만족스럽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20.0%가 ‘그저 그렇다’, 16.7%가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학력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만족스럽다’를 우선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중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25.5%), ‘불만족스럽다’(14.5%) 라고 응답하고 있어 다른 학력의 학생들과는 가정생활의 만족도 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직업에 따라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직업별로 자영업인 경우에는 ‘불만족스럽다’(13.4%)로 다른 직업의 학생들과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님에 대한 태도

“당신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2>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64.4%의 학생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19.7%가 ‘우선 복종하고 난 후에 사유를 말씀드린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 내용으로는 ‘대체로 반항한다’(9.7%), ‘무조건 순종한다’(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부모님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 분		무조건 순종	일단 복종	선별 순종	대체로 반항	계	d.f	χ^2
성별	남학생	19 (8.0)	54 (22.7)	146 (61.3)	19 (8.0)	238 (100)	3	6.696
	여학생	11 (4.5)	41 (16.7)	165 (67.3)	28 (11.4)	245 (100)		
학교	중학교	19 (8.7)	43 (19.7)	134 (61.5)	22 (10.1)	218 (100)	3	4.593
	고등학교	11 (4.2)	52 (19.6)	177 (66.8)	25 (9.4)	265 (100)		
생활정도	상	4 (9.8)	11 (26.8)	25 (61.0)	1 (2.4)	41 (100)	6	11.056
	중	24 (5.8)	76 (18.3)	275 (66.1)	41 (9.9)	416 (100)		
	하	2 (7.7)	8 (30.8)	11 (42.3)	5 (19.2)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2 (3.6)	13 (23.6)	34 (61.8)	6 (10.9)	55 (100)	9	5.805
	고졸	12 (5.0)	48 (19.9)	159 (66.0)	22 (9.1)	241 (100)		
	대졸	12 (7.8)	28 (18.3)	99 (64.7)	14 (9.2)	153 (100)		
	대학원졸	4 (11.8)	6 (17.6)	19 (55.9)	5 (14.7)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2 (4.3)	12 (26.1)	27 (58.7)	5 (10.9)	46 (100)	18	14.432
	공업	2 (12.5)	2 (12.5)	11 (68.8)	1 (6.3)	16 (100)		
	상업	2 (2.7)	14 (18.7)	48 (64.0)	11 (14.7)	75 (100)		
	자영	5 (5.2)	24 (24.7)	61 (62.9)	7 (7.2)	97 (100)		
	공무원	8 (7.5)	17 (16.0)	70 (66.0)	11 (10.4)	106 (100)		
	회사원	8 (10.7)	13 (17.3)	46 (61.3)	8 (10.7)	75 (100)		
	기타	3 (4.4)	13 (19.1)	48 (70.6)	4 (5.9)	68 (100)		
계		30 (6.2)	95 (19.7)	311 (64.4)	47 (9.7)	483 (100)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순종한다’(61.5%), ‘일단 복종하고 난 후에 사유를 말씀드린다’(19.7%), ‘대체로 반항한다’(10.1%), ‘무조건 순종한다’(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옳은 일에만 순종한다’(66.8%), ‘일단 복종하고 난 후에 사유를 말씀드린다’(19.6%), ‘대체로 반항한다’(9.4%), ‘무조건 순종한다’(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말씀에 대해 선별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부모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61.0%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순종한다’, 다음으로 26.8%가 ‘일단 복종하고 난 후에 사유를 말씀드린다’, 9.8%가 ‘무조건 순종한다’, 2.4%가 ‘대체로 반항한다’라고 응답하는 한편,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66.1%가 ‘옳은 일에만 순종한다’, 18.3%가 ‘일단 순종한 후 사유를 말씀드린다’, 9.9%가 ‘대체로 반항한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42.3%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순종한다’, 다음으로 30.8%가 ‘일단 복종하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린다’, 19.2%가 ‘대체로 반항한다’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신의 생활정도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복종과 반항이라는 두 가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61.3%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순종한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22.7%가 ‘일단 복종하고 난 후에 말씀드린다’, 8.0%가 ‘무조건 순종한다’와 ‘대체로 반항한다’라고 각각 생각하고 있다. 여학생 역시 남학생과 동일하게 ‘옳은 일에만 순종한다’(67.3%)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16.7%가 ‘일단 복종하고 난 후에 말씀드린다’,

11.4%가 ‘대체로 반항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학력에 관계 없이 학생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순종한다’를 우선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대학원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반항한다’(14.7%), ‘무조건 순종한다’(11.8%)로 응답하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직업에 따라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직업별로 상업인 경우에는 ‘대체로 반항한다’(14.7%)로 다른 직업의 학생들과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이 부모님 말씀에 대한 가치관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하여 복종하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 분석

“학생의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3>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46.6%의 학생이 ‘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21.9%가 ‘과잉 보호적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권위적이다’(12.4%), ‘일관성 없다’(12.2%), ‘방임적이다’(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부모님의 자녀 교육 태도에 대해 ‘민주적이다’(47.7%), ‘과잉 보호적이다’(26.6%), ‘권위적이다’(13.3%), ‘일관성 없음’(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민주적이다’(45.7%), ‘과잉 보호적이다’(18.1%), ‘일관성 없다’(16.2%), ‘권위적이다’(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님의 교육 태도에 대해

<표 14> 부모의 자녀교육 태도

단위 : 명(%)

구 분		권위적	과잉 보호	민주적	방임적	일관성 없음	계	d.f	χ^2
성별	남학생	35 (14.7)	67 (28.2)	88 (37.0)	17 (7.1)	31 (13.0)	238 (100)	4	19.820***
	여학생	25 (10.2)	39 (15.9)	137 (55.9)	16 (6.5)	28 (11.4)	245 (100)		
학교	중학교	29 (13.3)	58 (26.6)	104 (47.7)	11 (5.0)	16 (7.3)	218 (100)	4	13.875**
	고등학교	31 (11.7)	48 (18.1)	121 (45.7)	22 (8.3)	43 (16.2)	265 (100)		
생활정도	상	9 (22.0)	10 (24.4)	14 (34.1)	1 (3.8)	7 (17.1)	41 (100)	8	20.287**
	중	48 (11.5)	88 (21.2)	205 (49.3)	31 (7.5)	44 (10.6)	416 (100)		
	하	3 (11.5)	8 (30.8)	6 (23.1)	1 (3.8)	8 (30.8)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5 (9.1)	9 (16.4)	27 (49.1)	6 (10.9)	8 (14.5)	55 (100)	12	18.123
	고졸	30 (12.4)	48 (19.9)	118 (49.0)	20 (8.3)	25 (10.4)	241 (100)		
	대졸	21 (13.7)	43 (28.1)	65 (42.5)	7 (4.6)	17 (11.1)	153 (100)		
	대학원졸	4 (11.8)	6 (17.6)	15 (44.1)	0 (0.0)	9 (26.5)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7 (15.2)	9 (19.6)	16 (34.8)	6 (13.0)	8 (17.4)	46 (100)	24	30.159
	공업	1 (6.3)	8 (50.0)	5 (31.3)	1 (6.3)	1 (6.3)	16 (100)		
	상업	10 (13.3)	19 (25.3)	35 (46.7)	4 (5.3)	7 (9.3)	75 (100)		
	자영	12 (12.4)	20 (20.6)	41 (42.3)	9 (9.3)	15 (15.5)	97 (100)		
	공무원	16 (15.1)	17 (16.0)	55 (51.9)	4 (3.8)	14 (13.2)	106 (100)		
	회사원	5 (6.7)	22 (29.3)	38 (50.7)	2 (2.7)	8 (10.7)	75 (100)		
	기타	9 (13.2)	11 (16.2)	35 (51.5)	7 (10.3)	6 (8.8)	68 (100)		
계		60 (12.4)	106 (21.9)	225 (46.6)	33 (6.9)	59 (12.2)	483 (100)		

*** $p < .001$, ** $p < .01$

민주적임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5$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교육 태도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34.1%가 '민주적이다', 다음으로 24.4%가 '과잉 보호적이다'(24.4%), '권위적이다'(22.0%), '일관성 없다'(17.1%)라고 응답하는 한편,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민주적이다'(49.3%), '과잉 보호적이다'(21.1%), '권위적이다'(11.5%)라고 응답하고 있다.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30.8%가 '과잉 보호적이다'와 '일관성 없다'가 같은 비율로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민주적이다'(23.1%), '권위적이다'(11.5%)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도가 상층으로 갈수록 권위적이며 과잉 보호적인 반면, 하층으로 갈수록 민주적 보다는 일관성 없다는 비율이 높아 졌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5$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37.0%가 '민주적이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과잉 보호적이다'(28.2%), '권위적이다'(14.7%), '일관성 없다'(13.0%)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학생은 55.9%가 '민주적이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과잉 보호적이다'(15.9%), '일관성 없다'(11.4%), '권위적이다'(10.2%)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 부모님의 자녀 교육 태도에 대해 학력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민주적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하위 학력에 갈수록 방임적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졸인 경우 다른 학력과는 다르게 '일관성 없다'(26.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직업에 따라 '민주적이다'라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농업인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로 ‘방임적이다’(13.0%)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민주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과잉 보호를 지적하고 있다.

3. 사회 생활 영역에서의 가치관

사회현상과 문제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사회일반에 대한 태도와 경제일반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청소년 문제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사회일반에 대한 가치관의 분석은 사회의 건전성 정도, 사회정의와 공평성의 문제, 일반적인 사회 문제, 전통문화관, 그리고 기성 세대관을 분석하였다.

1) 오늘날 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건전성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하는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5>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60.9%의 학생이 ‘다소 퇴폐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15.5%가 ‘매우 퇴폐적이다’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 내용으로는 ‘잘 모르겠다’(13.5%), ‘비교적 건전하다’(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오늘날 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소 퇴폐적이다’(52.8%), ‘잘 모르겠다’(19.7%), ‘매우 퇴폐적이다’(17.9%), ‘비교적 건전하다’(8.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다소 퇴폐적이다’(67.5%), ‘매우 퇴폐적이다’(13.6%), ‘비교적 건전하다’(10.2%), ‘잘 모르겠다’(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오늘날 사회적 건전성

단위 : 명(%)

구 분		매우 되폐	다소 되폐	살 모름	비교적 건전	매우 건전	계	d.f	χ^2
성별	남학생	37 (15.5)	141 (59.2)	31 (13.0)	27 (11.3)	2 (0.2)	238 (100)	4	2.341
	여학생	38 (15.5)	153 (62.4)	34 (13.9)	18 (7.3)	2 (0.8)	245 (100)		
학교	중학교	39 (17.9)	115 (52.8)	43 (19.7)	18 (8.3)	3 (1.4)	218 (100)	4	19.245***
	고등학교	36 (13.6)	179 (67.5)	22 (8.3)	27 (10.2)	1 (0.4)	265 (100)		
생활정도	상	10 (24.4)	22 (53.7)	4 (9.8)	4 (9.8)	1 (2.4)	41 (100)	8	19.752*
	중	56 (13.5)	261 (62.7)	56 (13.5)	41 (9.9)	2 (0.5)	416 (100)		
	하	9 (34.6)	11 (42.3)	5 (19.2)	0 (0.0)	1 (3.8)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12 (21.8)	28 (50.9)	7 (12.7)	7 (12.7)	1 (1.8)	55 (100)	12	14.539
	고졸	27 (11.2)	162 (67.2)	30 (12.4)	20 (8.3)	2 (0.8)	241 (100)		
	대졸	31 (11.2)	81 (52.9)	25 (16.3)	15 (9.8)	1 (0.7)	153 (100)		
	대학원졸	5 (14.7)	23 (67.6)	3 (8.8)	3 (8.8)	0 (0.0)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5 (10.9)	31 (67.4)	6 (13.0)	3 (6.5)	1 (2.2)	46 (100)	24	24.909
	공업	3 (18.8)	6 (37.7)	2 (12.5)	5 (31.3)	0 (0.0)	16 (100)		
	상업	14 (18.8)	45 (60.0)	7 (9.3)	9 (12.0)	0 (0.0)	75 (100)		
	사영	13 (13.4)	60 (61.9)	15 (15.5)	7 (7.2)	2 (2.1)	97 (100)		
	공무원	16 (15.1)	71 (67.0)	10 (9.4)	9 (8.5)	0 (0.0)	106 (100)		
	회사원	11 (14.7)	45 (60.0)	12 (16.0)	6 (8.0)	1 (1.3)	75 (100)		
	기타	13 (19.1)	36 (52.9)	13 (19.1)	6 (8.8)	0 (0.0)	68 (100)		
계		75 (15.5)	294 (60.9)	65 (13.5)	45 (9.3)	4 (0.8)	483 (100)		

*** $p < .001$, * $p < .05$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대체로 전반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인 경우 ‘다소 퇴폐적이다’(53.7%), ‘매우 퇴폐적이다’(24.4%)로 나타났고, 중층인 경우 ‘다소 퇴폐적이다’(62.7%), ‘매우 퇴폐적이다’(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층인 경우 ‘다소 퇴폐적이다’(42.3%), ‘매우 퇴폐적이다’(34.6%) 순으로 나타나 하층으로 갈수록 오늘날 사회의 건전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정도에 따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59.2%가 ‘다소 퇴폐적이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매우 퇴폐적이다’(15.5%), ‘잘 모르겠다’(13.0%)로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62.5%로 ‘매우 퇴폐적이다’, ‘잘 모르겠다’(13.9%), ‘비교적 건전하다’(7.3%)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오늘날 사회의 건전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다소 퇴폐적이다’를 우선으로 꼽고있으나, 학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매우 퇴폐적이다’가 중졸(21.8%)과 대학원졸(14.7%)인 경우에 고졸(11.2%), 대졸(11.2%)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직업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다소 퇴폐적이다’를 우선으로 꼽고있으며, 다음으로는 직업에 따라 ‘매우 퇴폐적이다’와 ‘잘 모르겠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 정도,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2) 오늘날 사회의 정의 공평성에 대한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의 공평성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하는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6>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64.4%의 학생이 ‘다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21.9%가 ‘매우 부당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잘 모르겠다’(7.0%), ‘비교적 공평하다’(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오늘날 사회의 정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으로 ‘다소 부당하다’(64.7%), ‘매우 부당하다’(18.8%), ‘잘 모르겠다’(9.2%), ‘비교적 공평하다’(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다소 부당하다’(64.7%), ‘매우 부당하다’(24.5%), ‘비교적 공평하다’(6.0%), ‘잘 모르겠다’(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대체로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인 경우 ‘다소 부당하다’(51.2%), ‘매우 부당하다’(24.4%) 순으로 나타났고, 중층인 경우 ‘다소 부당하다’(67.1%), ‘매우 부당하다’(2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층인 경우 ‘다소 부당하다’(42.3%), ‘매우 부당하다’(42.3%) 순으로 나타나 하층으로 갈수록 오늘날 사회의 정의 공평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정도에 따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64.3%가 ‘다소 부당하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매우 부당하다’(21.4%), ‘잘 모르겠다’(6.9%)로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64.5%로 ‘다소 부당하다’, ‘매우 부당하다’(22.4%), ‘잘

<표 16> 오늘날 사회의 정의 공정성

단위 : 명(%)

구 분		매우 부당	다소 부당	잘 모름	비교적 공정	매우 공정	계	d.f	χ^2
성 별	남학생	51 (21.4)	153 (64.3)	17 (6.9)	12 (5.0)	5 (2.1)	238 (100)	4	2.951
	여학생	55 (22.4)	158 (64.5)	17 (6.9)	14 (5.7)	1 (0.4)	245 (100)		
학 교	중학교	41 (18.8)	141 (64.7)	20 (9.2)	10 (4.6)	6 (1.2)	218 (100)	4	12.123*
	고등학교	65 (24.5)	170 (64.7)	14 (5.3)	16 (6.0)	0 (0.0)	265 (100)		
생 활 정 도	상	10 (24.4)	21 (51.2)	4 (9.8)	4 (9.8)	2 (4.9)	41 (100)	8	16.037*
	중	85 (20.4)	279 (67.1)	28 (6.7)	20 (4.8)	4 (1.0)	416 (100)		
	하	11 (42.3)	11 (42.3)	2 (7.7)	2 (7.7)	0 (0.0)	26 (100)		
보 호 자 학 력	중졸	14 (25.5)	38 (69.1)	0 (0.0)	3 (5.5)	0 (0.0)	55 (100)	12	10.900
	고졸	50 (20.7)	158 (65.6)	18 (7.5)	13 (5.4)	2 (0.8)	241 (100)		
	대졸	37 (24.2)	90 (58.8)	14 (9.2)	9 (5.9)	3 (2.0)	153 (100)		
	대학원졸	5 (14.7)	25 (73.5)	2 (5.9)	1 (2.9)	1 (2.9)	34 (100)		
보 호 자 직 업	농업	6 (13.0)	36 (78.3)	1 (2.2)	3 (6.5)	0 (0.0)	46 (100)	24	32.272
	공업	4 (25.0)	11 (68.8)	0 (0.0)	1 (6.3)	0 (0.0)	16 (100)		
	상업	15 (20.0)	50 (66.7)	5 (6.7)	4 (5.3)	1 (1.3)	75 (100)		
	자영	23 (23.7)	61 (62.9)	8 (8.2)	5 (5.2)	0 (0.0)	97 (100)		
	공무원	23 (21.7)	72 (67.9)	3 (2.8)	7 (6.6)	1 (0.9)	106 (100)		
	회사원	16 (21.3)	44 (58.7)	7 (9.3)	4 (5.3)	4 (5.3)	75 (100)		
	기타	19 (27.9)	37 (54.4)	10 (14.7)	2 (2.9)	0 (0.0)	68 (100)		
계		106 (21.9)	311 (64.4)	34 (7.0)	26 (5.4)	6 (1.3)	483 (100)		

* $p < .01$

모르겠다'(6.9%)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오늘날 사회의 정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다소 부당하다'를 우선으로 꼽고있으나, 다음으로는 학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매우 부당하다'가 중졸(25.5%)과 고졸(20.7%), 대졸(24.2%)에 비해 대학원졸(14.7%)은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직업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다소 부당하다'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직업에 따라 '매우 부당하다'와 '잘 모르겠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인 경우에는 '다소 부당하다'(78.3%)가 다른 직업과 비교해볼 때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매우 부당하다'(13.0%)는 다른 직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 정도,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3) 오늘날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7>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34.4%의 학생이 '정치부패'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과열입시'(27.3%), '폭력범죄'(17.0%), '가치관의 혼란'(12.6%), '경제분배'(5.6%), '무역직자'(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오늘날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폭력범죄'(29.4%), '정치부패'(27.1%), '과열입시'(25.2%), '가치혼란'(9.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정치부패'(43.4%), '과열입시'(29.8%), '가치혼란'(15.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표 17> 심각한 사회문제

단위 : 명(%)

구 분		정치 부패	경제 분배	무역 적자	가치 혼란	과열 입시	폭력 범죄	계	df	χ^2
성별	남학생	91 (38.2)	16 (6.7)	7 (2.9)	36 (15.1)	53 (22.3)	35 (14.7)	238 (100)	5	12.037*
	여학생	75 (30.6)	11 (4.5)	6 (2.4)	25 (10.2)	81 (33.1)	47 (19.2)	245 (100)		
학교	중학교	59 (27.1)	13 (6.0)	6 (2.8)	21 (9.6)	55 (25.2)	64 (29.4)	218 (100)	5	45.876***
	고등학교	107 (40.4)	14 (5.3)	7 (2.6)	40 (15.1)	79 (29.8)	18 (6.8)	265 (100)		
생활 정도	상	14 (34.1)	5 (12.2)	3 (7.3)	7 (17.1)	9 (22.0)	3 (7.3)	41 (100)	10	13.243
	중	143 (34.4)	21 (5.0)	9 (2.2)	51 (12.3)	120 (28.8)	72 (17.3)	416 (100)		
	하	9 (34.6)	1 (3.8)	1 (3.8)	3 (11.5)	5 (19.2)	7 (26.9)	26 (100)		
보호 자 학력	중졸	25 (45.5)	2 (3.6)	1 (1.8)	6 (10.9)	12 (21.8)	9 (16.4)	55 (100)	15	11.898
	고졸	78 (32.4)	18 (7.5)	8 (3.3)	28 (11.6)	65 (27.0)	44 (18.3)	241 (100)		
	대졸	51 (33.3)	6 (3.9)	2 (1.3)	21 (13.7)	49 (32.0)	24 (15.7)	153 (100)		
	대학원졸	12 (35.3)	1 (2.9)	2 (5.9)	6 (17.6)	8 (23.5)	5 (14.7)	34 (100)		
보호 자 직업	농업	15 (32.6)	2 (4.3)	2 (4.3)	3 (6.5)	13 (28.3)	11 (23.9)	46 (100)	5	12.034*
	공업	6 (37.5)	1 (6.3)	0 (0.0)	2 (12.5)	2 (12.5)	5 (31.3)	16 (100)		
	상업	31 (41.3)	6 (8.0)	2 (2.7)	6 (8.0)	20 (26.7)	10 (13.3)	75 (100)		
	자영	32 (33.0)	6 (6.2)	4 (4.1)	13 (13.4)	28 (28.9)	14 (14.4)	97 (100)		
	공무원	39 (36.8)	5 (4.7)	1 (0.9)	19 (17.9)	27 (25.5)	15 (14.2)	106 (100)		
	회사원	17 (22.7)	4 (5.3)	3 (4.0)	10 (13.3)	26 (34.7)	15 (20.0)	75 (100)		
	기타	26 (38.2)	3 (4.4)	1 (1.5)	8 (11.8)	18 (26.5)	12 (17.6)	68 (100)		
계		166 (34.4)	27 (5.6)	13 (2.7)	61 (12.6)	134 (27.7)	82 (17.0)	483 (100)		

*** $p < .001$, * $p < .01$

수준 $p < .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대체로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중·하에 관계없이 ‘정치부패’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층과 중층에서는 ‘과열입시’를 꼽은 반면, 하층에서는 ‘폭력범죄’를 꼽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38.2%가 ‘정치부패’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과열입시’(22.3%), ‘가치혼란’(15.1%), ‘폭력범죄’(14.7%)로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33.1%가 ‘과열입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치부패’(30.6%), ‘폭력범죄’(19.2%)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 ‘정치부패’(45.5%), ‘과열입시’(21.8%), ‘폭력범죄’(16.4%), ‘가치혼란’(10.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고졸인 경우 ‘정치부패’(32.4%), ‘과열입시’(27.0%), ‘폭력범죄’(18.3%), ‘가치혼란’(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인 경우 ‘정치부패’(33.3%), ‘과열입시’(32.0%), ‘폭력범죄’(15.7%), ‘가치혼란’(13.7%)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인 경우 ‘정치부패’(35.3%), ‘과열입시’(23.5%), ‘가치혼란’(17.6%), ‘폭력범죄’(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정치부패’, ‘과열입시’, ‘폭력범죄’, ‘가치혼란’ 등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회사원인 경우에 ‘과열입시’(34.7%), ‘정치부패’(22.7%), ‘폭력범죄’(20.0%), ‘가치혼란’(13.3%)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 정도,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4) 전통문화에 대한 결과분석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하는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8>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63.6%의 학생이 ‘계승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15.3%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잘 모르겠다’(9.5%), ‘보통이다’(8.5%), ‘부끄럽다’(3.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계승할 가치가 있다’(54.6%), ‘매우 우수하다’(17.4%), ‘잘 모르겠다’(11.5%), ‘보통이다’(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계승할 가치가 있다’(70.9%), ‘매우 우수하다’(13.6%), ‘잘 모르겠다’(7.9%), ‘보통이다’(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5$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대체로 전반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인 경우 ‘계승할 가치가 있다’(48.8%), ‘매우 우수하다’(26.8%)로 나타났고, 중층인 경우 ‘계승할 가치가 있다’(66.1%), ‘매우 우수하다’(13.5%)로 나타났으며, 하층인 경우 ‘계승할 가치가 있다’(46.2%), ‘매우 우수하다’(26.9%) 순으로 나타났다. 상층인 경우 ‘보통이다’(12.2%)라는 응답이 중·하층의 비율보다 증가했는가 하면 하층인 경우 ‘잘 모르겠다’(11.5%)가 상 중층에 비해 그 비율이 증가했다. 이러한 생활 정도에 따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57.1%가 ‘계승할 가치가 있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매우 우수하다’(19.7%), ‘잘 모르겠다’(8.4%)로

<표 18> 전통문화의 인식

단위 : 명(%)

구 분		매우 우수	세 중 가치	보 통	부 끄 러움	잘 모름	계	d.f	χ^2
성 별	남학생	47 (19.7)	136 (57.1)	24 (10.1)	11 (4.6)	20 (8.4)	238 (100)	4	14.542**
	여학생	27 (11.0)	171 (69.8)	17 (6.9)	4 (1.6)	26 (10.6)	245 (100)		
학 교	중학교	38 (17.4)	119 (54.6)	25 (11.5)	11 (5.0)	25 (11.5)	218 (100)	4	16.737**
	고등학교	36 (13.6)	188 (70.9)	16 (6.0)	4 (1.5)	21 (7.9)	265 (100)		
생 활 정 도	상	11 (26.8)	20 (48.8)	5 (12.2)	3 (7.3)	2 (4.9)	41 (100)	8	16.422*
	중	56 (13.5)	275 (66.1)	34 (8.2)	10 (2.4)	41 (9.9)	416 (100)		
	하	7 (26.9)	12 (46.2)	2 (7.7)	2 (7.7)	3 (11.5)	26 (100)		
보 호 자 학 력	중졸	11 (20.0)	34 (61.8)	3 (5.5)	2 (3.6)	5 (9.1)	55 (100)	12	17.784
	고졸	30 (12.4)	163 (67.6)	20 (8.3)	7 (2.9)	21 (8.7)	241 (100)		
	대졸	28 (18.3)	93 (60.8)	16 (10.5)	5 (3.3)	11 (7.2)	153 (100)		
	대학원졸	5 (14.7)	17 (50.0)	2 (5.9)	1 (2.9)	9 (26.5)	34 (100)		
보 호 자 직 업	농업	6 (13.0)	33 (71.7)	2 (4.3)	2 (4.3)	3 (6.5)	46 (100)	24	23.883
	공업	6 (37.5)	6 (37.5)	3 (18.8)	1 (6.3)	0 (0.0)	16 (100)		
	상업	11 (14.7)	50 (66.7)	5 (6.7)	2 (2.7)	7 (9.3)	75 (100)		
	자영	12 (12.4)	66 (68.0)	5 (5.2)	3 (3.1)	11 (11.3)	97 (100)		
	공무원	16 (15.1)	69 (65.1)	12 (11.3)	1 (0.9)	8 (7.5)	106 (100)		
	회사원	10 (13.3)	43 (57.3)	9 (12.0)	4 (5.3)	9 (12.0)	75 (100)		
	기타	13 (19.1)	40 (58.8)	5 (7.4)	2 (2.9)	8 (11.8)	68 (100)		
계		74 (15.3)	307 (63.6)	41 (8.5)	15 (3.1)	46 (9.5)	483 (100)		

** $p < .01$, * $p < .05$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69.8%로 '계승할 가치가 있다', '매우 우수하다'(11.0%), '잘 모르겠다'(10.6%)로 나타나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우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계승할 가치가 있다'를 우선으로 꼽고있으나, 다음으로는 학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가 중졸(20.0%)과 고졸(12.4%), 대졸(18.3%), 에 비해 대학원졸은 '잘 모르겠다'(26.5%)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직업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계승할 가치가 있다'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직업에 따라 '매우 우수하다'와 '잘 모르겠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업인 경우에는 '계승할 가치가 있다'(37.5%)와 '매우 우수하다'(37.5%)로 다른 직업과 비교해 볼 때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 정도,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5) 기성세대의 가장 불만스러운 것

“기성세대의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19>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40.4%의 학생이 '권위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28.4%가 '사회적 부조리'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 내용으로는 '황금만능주의'(13.7%), '폭력주의'(13.0%), '사회향락'(4.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학생들은 기성세대의 가장 불만스러운 것을 '사회적 부조리'(26.6%), '권위주의'(26.1%), '폭력주의'(25.7%), '황금만

<표 19> 기성세대의 불만스러운 것

단위 : 명(%)

구 분		사회 향락	황금만 능주의	폭력 주의	권위 주의	사회적 부조리	계	df	χ^2
성별	남학생	11 (4.6)	35 (14.7)	45 (18.9)	89 (37.4)	58 (24.4)	238 (100)	4	16.417**
	여학생	11 (4.5)	31 (2.0)	18 (7.3)	106 (43.3)	79 (32.2)	245 (100)		
학교	중학교	12 (5.5)	35 (16.1)	56 (25.7)	57 (26.1)	58 (26.6)	218 (100)	4	71.504***
	고등학교	10 (3.8)	31 (11.7)	7 (2.6)	138 (52.1)	79 (29.8)	265 (100)		
생활 정도	상	4 (9.8)	4 (9.8)	11 (26.8)	15 (36.6)	7 (17.1)	41 (100)	8	22.743**
	중	18 (4.3)	57 (13.7)	50 (12.0)	175 (42.1)	116 (27.9)	416 (100)		
	하	0 (0.0)	5 (19.2)	2 (7.7)	5 (19.2)	14 (53.8)	26 (100)		
보호자 학력	중졸	0 (0.0)	11 (20.0)	5 (9.1)	24 (46.6)	15 (27.3)	55 (100)	12	8.045
	고졸	13 (5.4)	31 (12.9)	32 (13.3)	94 (39.0)	71 (29.5)	241 (100)		
	대졸	7 (4.6)	21 (13.7)	20 (13.1)	61 (39.9)	44 (28.8)	153 (100)		
	대학원졸	2 (5.9)	3 (8.8)	6 (17.6)	16 (47.1)	7 (20.6)	34 (100)		
보호자 직업	농업	2 (4.3)	9 (19.6)	6 (13.0)	20 (43.5)	9 (19.6)	46 (100)	24	31.034
	공업	1 (6.3)	2 (12.5)	6 (37.5)	5 (31.3)	2 (12.5)	16 (100)		
	상업	3 (4.0)	12 (16.0)	5 (6.7)	29 (38.7)	26 (34.7)	75 (100)		
	자영	7 (7.2)	11 (11.3)	9 (9.3)	35 (36.1)	35 (36.1)	97 (100)		
	공무원	3 (2.8)	16 (11.3)	10 (9.4)	48 (45.3)	29 (27.4)	106 (100)		
	회사원	5 (6.7)	9 (12.0)	14 (18.7)	30 (40.0)	17 (22.7)	75 (100)		
	기타	1 (1.5)	7 (10.3)	13 (19.1)	28 (41.2)	19 (27.9)	68 (100)		
계		22 (4.5)	66 (13.7)	63 (13.0)	195 (40.4)	137 (28.4)	483 (100)		

*** $p < .001$, ** $p < .01$

능주의'(16.1%), '사회향락'(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부조리'(29.8%), '황금만능주의'(11.7%), '사회향락'(3.8%), '폭력주의'(2.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인 경우에 36.6%가 '권위주의'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주의'(26.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생활 정도가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권위주의'(42.1%), '사회적 부조리'(2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생활정도가 하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갈수록 '사회적 부조리'(53.8%), '권위주의'(19.2%)로 나타나 하층으로 갈수록 기성세대의 권위주의보다는 사회적 부조리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자신의 생활수준이 중에서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품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37.4%가 '권위주의'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24.4%로 '사회적 부조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43.3%로 '권위주의', 다음으로 32.2%로 '사회적 부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에 관계없이 '권위주의'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사회적 부조리를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1$ 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에 따라 보호자 학력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기성세대의 가장 불만스러운 것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권위주의' 다음으로 고등학생보다 '폭력주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성별에서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폭력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정도에서 기성세대에 대한 가장 불만스러운 것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6) 금전만능 풍조에 대한 가치관 분석

“현대사회와 같은 금전만능의 풍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20>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56.7%의 학생이 현대사회에서 금전 만능의 풍조가 ‘사회안정을 해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전통미풍을 해친다’(12.4%), ‘사회발전에 기여한다’(5.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학생들은 현대사회에서 금전만능의 풍조가 ‘사회안정을 해친다’(45.4%), ‘잘 모르겠다’(35.3%), ‘전통미풍을 해친다’(13.3%), ‘사회발전에 기여한다’(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현대사회의 금전만능의 풍조가 ‘사회안정을 해친다’(66.0%), ‘잘 모르겠다’(16.6%), ‘전통미풍을 해친다’(11.7%), ‘사회발전에 기여한다’(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금전만능의 풍조를 생활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46.3%)가 ‘해친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57.5%, 하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61.5%가 나타나고 있어 상층에서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현대사회에서 금전만능의 풍조가 ‘사회안정을 해친

<표 20> 금전만능 풍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 분		사회안정 해침	전통미풍 저해	사회발전 기여	잘 모르겠다	계	d.f	χ^2
성별	남학생	130 (54.6)	36 (15.1)	15 (6.3)	57 (23.9)	238 (100)	3	3.562
	여학생	144 (58.8)	24 (9.8)	13 (5.3)	64 (26.1)	245 (100)		
학교	중학교	99 (45.4)	29 (13.3)	13 (6.0)	77 (35.3)	218 (100)	3	25.962***
	고등학교	175 (66.0)	31 (11.7)	15 (5.7)	44 (16.6)	265 (100)		
생활정도	상	19 (46.3)	9 (22.0)	6 (14.6)	7 (17.1)	41 (100)	6	12.238
	중	239 (57.5)	47 (11.3)	21 (5.0)	109 (26.2)	416 (100)		
	하	16 (61.5)	4 (15.4)	1 (3.8)	5 (19.2)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29 (52.7)	10 (18.2)	4 (7.3)	12 (21.8)	55 (100)	9	4.300
	고졸	136 (56.4)	29 (12.0)	11 (4.6)	65 (27.0)	241 (100)		
	대졸	88 (57.5)	17 (11.1)	11 (4.6)	37 (24.2)	153 (100)		
	대학원졸	21 (61.8)	4 (11.8)	2 (5.9)	7 (20.6)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21 (45.7)	8 (17.4)	4 (8.7)	13 (28.3)	46 (100)	18	17.571
	공업	5 (31.3)	4 (25.0)	1 (6.3)	6 (37.5)	16 (100)		
	상업	44 (58.7)	10 (13.3)	6 (8.0)	15 (20.0)	75 (100)		
	자영	56 (57.7)	14 (14.4)	6 (6.2)	21 (21.6)	97 (100)		
	공무원	68 (64.2)	12 (11.3)	3 (2.8)	23 (21.7)	106 (100)		
	회사원	39 (52.0)	7 (9.3)	5 (6.7)	24 (32.0)	75 (100)		
	기타	41 (60.3)	5 (7.4)	3 (4.4)	19 (27.9)	68 (100)		
계		274 (56.7)	60 (12.4)	28 (5.8)	121 (25.1)	483 (100)		

*** $p < .001$

다'는 비율이 올라감을 알 수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남학생의 54.6%가 '사회안정을 해친다'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여학생은 58.8%로 여학생이 조금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관계없이 현대사회에서 금전만능의 풍조를 '사회안정을 해친다'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자 직업에 관계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사회안정을 해친다'를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다. 특히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64.2%로 약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보호자 직업이 공업인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37.5%)가 '사회안정을 해친다'(31.3%)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금전만능의 풍조에 대한 생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 정도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7) 재벌이 된 사람들의 부의 성취와 출세 요인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된 사람들의 개인적 경제 성취 및 출세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21>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42.4%의 학생이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18.0%이 '연줄 및 배경'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개인 능력'(16.8%), '부모 유산'(14.9%), '운'(6.0%), '학벌'(1.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학생들은 부와 출세요인에서 '자기 노력'(40.8%), '부모 유산'(22.0%), '개인 능력'(16.5%), '연줄 및 배경'(10.6%), '운'(6.9%), '학벌'(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부와 출세

<표 21> 부와 출세 요인

단위 : 명(%)

구 분		부모 유산	개인 능력	자기 노력	학벌	연줄 배경	운	계	d.f	χ^2
성별	남학생	34 (14.3)	36 (15.1)	116 (48.7)	2 (0.8)	35 (14.7)	15 (6.3)	238 (100)	5	10.813
	여학생	38 (15.5)	45 (18.4)	89 (36.3)	7 (2.9)	52 (21.2)	14 (5.7)	245 (100)		
학교	중학교	48 (22.0)	36 (16.5)	89 (40.8)	7 (3.2)	23 (10.6)	15 (6.9)	218 (100)	5	30.405***
	고등학교	24 (9.1)	45 (17.0)	116 (43.8)	2 (0.8)	64 (24.2)	14 (5.3)	265 (100)		
생활정도	상	4 (9.8)	7 (17.1)	21 (51.2)	2 (4.9)	5 (12.2)	2 (4.9)	41 (100)	10	4.998
	중	65 (15.6)	69 (16.6)	176 (42.3)	7 (1.7)	74 (17.8)	25 (6.0)	416 (100)		
	하	3 (11.5)	5 (19.2)	8 (30.8)	0 (0.0)	8 (30.8)	2 (7.7)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7 (12.7)	11 (20.0)	30 (54.5)	0 (0.0)	7 (12.7)	0 (0.0)	55 (100)	15	13.502
	고졸	35 (14.5)	39 (16.2)	100 (41.5)	7 (2.9)	43 (17.8)	17 (7.1)	241 (100)		
	대졸	24 (15.7)	27 (17.6)	59 (38.6)	1 (0.7)	32 (20.9)	10 (6.5)	153 (100)		
	대학원졸	6 (17.6)	4 (11.8)	16 (47.1)	1 (2.9)	5 (14.7)	2 (5.9)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5 (10.9)	11 (23.9)	20 (43.5)	1 (2.2)	6 (13.0)	3 (6.5)	46 (100)	30	33.395
	공업	6 (37.5)	0 (0.0)	8 (50.0)	0 (0.0)	0 (0.0)	2 (12.5)	16 (100)		
	상업	13 (17.3)	12 (16.0)	32 (42.7)	2 (2.7)	14 (18.7)	2 (2.7)	75 (100)		
	자영	10 (10.3)	12 (12.4)	43 (44.3)	0 (0.0)	23 (23.7)	9 (9.3)	97 (100)		
	공무원	12 (11.3)	19 (17.9)	47 (44.3)	2 (1.9)	22 (20.8)	4 (5.3)	106 (100)		
	회사원	12 (16.0)	14 (18.7)	28 (37.3)	2 (2.7)	15 (20.0)	4 (5.3)	75 (100)		
	기타	14 (20.6)	13 (19.1)	27 (39.7)	2 (2.9)	7 (10.3)	5 (7.4)	68 (100)		
계		72 (14.9)	81 (16.8)	205 (42.4)	9 (1.9)	87 (18.0)	29 (6.0)	483 (100)		

*** $p < .001$

요인에서 ‘자기 노력’(43.8%), ‘연줄 및 배경’(24.2%), ‘개인 능력’(17.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 부와 출세요인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인 경우에 51.2%가 ‘자기 노력’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7.0%가 ‘개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생활 정도가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기 노력’(42.3%), ‘연줄 및 배경’(17.7%), ‘개인 능력’(16.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생활 정도가 하층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노력’(30.8%), ‘연줄 및 배경’(30.8%), ‘개인 능력’(19.2%)로 나타나 하층으로 갈수록 ‘연줄 및 배경’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중층·하층에 해당되는 학생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48.7%가 ‘자기 노력’을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15.1%로 ‘개인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여학생은 36.3%로 ‘자기 노력’, 다음으로 21.2%로 ‘연줄 및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에 관계없이 ‘자기 노력’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나 고졸과 대졸에 가서는 ‘개인 능력’보다는 ‘연줄 및 배경’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적으로 ‘자기노력’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나 상업(18.7%), 자영(23.7%), 공무원(20.8%), 회사원(20.0%)인 경우에는 부와 출세요인으로 ‘자기 노력’ 다음으로 ‘개인 능력’ 보다는 ‘연줄 및 배경’을 꼽음으로서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된 사람들의 개인적 성취 및 출세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학생들이 ‘자기 노력’ 다음으로 ‘부모의 유산’을 우선으로 하고, 고등학생들이 ‘자기 노력’ 다음으로 ‘연줄 및

배경'을 우선으로 하는 데에서 학생들의 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재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

“우리 나라가 당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22〉 참고).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43.1%의 학생이 ‘빈부격차’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학생의 39.8%이 ‘과소비’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의 응답내용으로는 ‘향락퇴폐’(10.6%), ‘부역적자’(4.1%), ‘부동산투기’(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당면한 경제문제를 ‘과소비’(51.8%), ‘빈부격차’(3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빈부격차’(50.2%), ‘과소비’(29.8%), ‘향락퇴폐’(1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인 경우에 48.8%가 ‘과소비’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4.4%가 ‘빈부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생활 정도가 중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44.2%가 ‘빈부격차’, 39.7%가 ‘과소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생활정도가 하층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빈부격차’(53.8%), ‘과소비’(26.9%)로 나타나 하층으로 갈수록 과소비보다는 빈부격차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상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가치관과

<표 22>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

단위 : 명(%)

구 분		과소비	부동산 투 기	빈부 격차	무역 적자	향락 퇴폐	계	df	χ^2
성별	남학생	109 (45.8)	7 (2.9)	91 (38.2)	7 (2.9)	24 (10.1)	238 (100)	4	8.981
	여학생	83 (33.9)	7 (2.0)	117 (47.8)	13 (5.3)	24 (10.1)	245 (100)		
학교	중학교	113 (51.8)	5 (2.3)	75 (34.4)	11 (5.0)	14 (6.4)	218 (100)	4	28.799***
	고등학교	79 (29.8)	7 (2.6)	133 (50.2)	9 (3.4)	37 (14.0)	265 (100)		
생활정도	상	20 (48.8)	2 (4.9)	10 (24.4)	3 (7.3)	6 (14.6)	41 (100)	8	13.214
	중	165 (39.7)	8 (1.9)	184 (44.2)	17 (4.1)	42 (10.1)	416 (100)		
	하	7 (26.9)	2 (7.7)	14 (53.8)	0 (0.0)	3 (11.5)	26 (100)		
보호자학력	중졸	18 (32.7)	3 (5.5)	26 (47.3)	2 (3.6)	6 (10.9)	55 (100)	12	18.483
	고졸	94 (39.0)	5 (2.1)	108 (44.8)	8 (3.3)	26 (10.8)	241 (100)		
	대졸	69 (45.1)	4 (2.6)	62 (40.5)	5 (3.3)	13 (8.5)	153 (100)		
	대학원졸	11 (32.4)	0 (0.0)	12 (35.3)	5 (14.7)	6 (17.6)	34 (100)		
보호자직업	농업	17 (37.0)	2 (4.3)	19 (41.3)	2 (4.3)	6 (13.0)	46 (100)	24	21.196
	공업	8 (50.0)	0 (0.0)	7 (43.7)	1 (6.3)	0 (0.0)	16 (100)		
	상업	34 (45.3)	4 (5.3)	29 (38.7)	3 (4.0)	5 (6.7)	75 (100)		
	자영	33 (34.0)	3 (3.1)	43 (44.3)	3 (3.1)	15 (15.5)	97 (100)		
	공무원	40 (37.7)	1 (0.9)	53 (50.0)	3 (2.8)	9 (8.5)	106 (100)		
	회사원	33 (44.0)	0 (0.0)	28 (37.3)	3 (4.0)	11 (14.7)	75 (100)		
	기타	27 (39.7)	2 (2.9)	29 (42.6)	5 (7.4)	5 (7.4)	68 (100)		
계		192 (39.8)	12 (2.4)	208 (43.1)	20 (4.1)	51 (10.6)	483 (100)		

*** $p < .001$

중층·하층에 해당되는 학생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45.8%가 ‘과소비’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빈부격차’(32.8%)라고 대답하고 있으나, 여학생은 47.8%가 ‘빈부격차’, 다음으로 ‘과소비’(33.9%)라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중졸, 고졸, 대학원졸에 관계없이 ‘빈부격차’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나 대졸에 가서는 ‘빈부격차’보다는 ‘과소비’를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직업별로 상업, 회사원인 경우에는 ‘과소비’를 우선으로 꼽고, 그 다음으로 ‘빈부격차’를 중요한 경제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자영·공무원인 경우에는 ‘빈부격차’를 우선으로 꼽고, 그 다음으로 ‘과소비’를 꼽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우리 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학생들이 ‘과소비’ 다음으로 ‘빈부격차’를 생각하고 고등학생들이 ‘빈부격차’ 다음으로 ‘과소비’를 꼽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9)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에 대한 요인 결과

“청소년들의 문제 유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생각하는 가치관을 살펴보았다.<표 23>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24.2%의 학생이 ‘약물복용’, ‘반항과 거부’(23.4%), ‘폭력행위’(21.3%), ‘흡연’(12.8%), ‘성적충동’(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비행 가능성에 대한 요인으로 ‘반항과 거부’(64.7%), ‘폭력행위’(23.9%), ‘흡연’(15.1%), ‘성적충동’(14.2%), ‘약물복용’(13.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약물복용’(32.8%), ‘반항과 거부’(22.3%), ‘폭력행위’(19.2%), ‘흡연’(10.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 23>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

단위 : 명(%)

구 분		음주	흡연	약물 복용	디스 코장	폭력 행위	이성 교제	성적 충동	반항 거부	계	d.f	χ^2
성별	남학생	17 (7.1)	38 (16.0)	49 (20.6)	3 (1.3)	45 (18.9)	2 (0.8)	29 (12.2)	55 (23.1)	238 (100)	7	19.133**
	여학생	3 (1.2)	24 (9.8)	68 (27.8)	5 (2.0)	58 (23.7)	4 (1.6)	25 (10.2)	58 (23.7)	245 (100)		
학교	중학교	8 (3.7)	33 (15.1)	30 (13.8)	6 (2.8)	52 (23.9)	4 (1.8)	31 (14.2)	54 (24.8)	218 (100)	7	28.607***
	고등학교	12 (4.5)	29 (10.9)	87 (32.8)	2 (0.8)	51 (19.2)	2 (0.8)	23 (8.7)	59 (22.3)	265 (100)		
생활 정도	상	3 (7.3)	7 (17.1)	5 (12.2)	2 (4.9)	6 (14.6)	0 (0.0)	9 (22.0)	9 (22.0)	41 (100)	14	18.700
	중	16 (3.8)	51 (12.3)	107 (25.7)	6 (1.4)	88 (21.2)	5 (1.2)	43 (10.3)	100 (24.0)	416 (100)		
	하	1 (3.8)	4 (15.4)	5 (19.2)	0 (0.0)	9 (34.6)	1 (3.8)	2 (7.7)	4 (15.4)	26 (100)		
보호 자 학력	중졸	2 (3.6)	7 (12.7)	13 (23.6)	0 (0.0)	20 (36.4)	0 (0.0)	1 (1.8)	12 (21.8)	55 (100)	21	24.012
	고졸	12 (5.0)	30 (12.4)	56 (23.2)	4 (1.7)	46 (19.1)	4 (1.7)	31 (12.9)	58 (24.1)	241 (100)		
	대졸	4 (2.6)	22 (14.4)	41 (26.8)	2 (1.3)	32 (20.9)	1 (0.7)	19 (12.4)	32 (20.9)	153 (100)		
	대학 원졸	2 (5.9)	3 (8.8)	7 (20.6)	2 (5.9)	5 (14.7)	1 (2.9)	3 (8.8)	11 (32.4)	34 (100)		
보호 자 직업	농업	4 (8.7)	2 (4.3)	12 (26.1)	0 (0.0)	12 (26.1)	0 (0.0)	7 (15.2)	9 (19.6)	46 (100)	42	35.233
	공업	0 (0.0)	3 (18.8)	2 (12.5)	1 (6.3)	4 (25.0)	0 (0.0)	1 (6.3)	5 (31.3)	16 (100)		
	상업	2 (2.7)	12 (16.0)	16 (21.3)	1 (1.3)	18 (24.0)	3 (4.0)	6 (8.0)	17 (22.7)	75 (100)		
	자영	3 (3.1)	12 (12.4)	28 (28.9)	3 (3.1)	17 (17.5)	0 (0.0)	15 (15.5)	19 (19.6)	97 (100)		
	공무원	4 (3.8)	11 (10.4)	27 (25.5)	1 (0.9)	28 (26.4)	1 (0.9)	11 (10.4)	23 (21.7)	106 (100)		
	회사원	4 (5.3)	12 (16.0)	17 (22.7)	1 (1.3)	10 (13.3)	1 (1.3)	6 (8.0)	24 (32.0)	75 (100)		
	기타	3 (4.4)	10 (14.7)	15 (22.1)	1 (1.5)	14 (20.6)	1 (1.5)	8 (11.8)	16 (23.5)	68 (100)		
계		20 (4.1)	62 (12.8)	117 (24.2)	8 (1.7)	103 (21.3)	6 (1.3)	54 (11.2)	113 (23.4)	483 (100)		

*** $p < .001$, ** $p < .01$

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대체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인 경우 '성적충동'과 '반항과 거부'가 각각 22.0%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흡연'(17.1%), '폭력행위'(14.6%)로 나타났고, 중층인 경우 '약물복용'(25.7%), '반항과 거부'(24.0%), '폭력행위'(21.2%), '흡연'(12.3%)으로 나타났으며, 하층인 경우 '폭력행위'(34.6%), '약물복용'(19.2%), '흡연'과 '반항 거부'가 각각 15.4%로 나타나 상층에서는 성적충동과 반항 거부, 중층에서는 약물복용과 반항 거부를, 하층에서는 폭력행위와 약물복용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23.1%가 '반항과 거부'를 가장 많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약물복용'(27.8%), '폭력행위'(18.9%), '흡연'(16.0%)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27.8%가 '약물복용'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23.7%가 '폭력행위'와 '반항과 거부'를 동일하게 나타냈다. 다음으로 '성적충동'(10.2%)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비행가능성 요인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다소의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 '폭력행위'(36.4%), '약물복용'(23.6%), '반항거부'(21.8%), '흡연'(12.7%)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고졸인 경우 '반항거부'(24.1%), '약물복용'(23.2%), '폭력행위'(19.1%), '성적 충동'(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인 경우 '약물복용'(26.8%), '반항 거부'(20.9%)와 '폭력행위'(20.9%), '흡연'(14.4%)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인 경우 '반항과 거부'(32.4%), '약물복용'(20.6%), '성적 충동'(8.8%)과 '흡연'(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직업에 따라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인 경우 '약물복용'(26.1%), 상업인 경우 '폭력행위'(24.0%), 자영인 경우 '약물복용'(28.9%), 공무원인 경우 '폭력행위'(26.4%), 회사원인 경우 '반항

거부'(32.0%)를 우선으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 정도,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10) 오늘날 청소년들의 당면 문제에 대한 가치관조사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살펴보았다.<표 24>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조사학생 483명중에서 68.3%의 학생이 ‘성적과 입시’를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취업 및 진로’(9.1%), ‘이성교제’(7.2%), ‘불량배의 협박’(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학교 급별에 따라 중학생들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당면한 문제와 고민에 대한 요인으로 ‘성적과 입시’(61.0%), ‘불량배의 협박’(15.1%), ‘이성문제’(10.1%), ‘교우문제’(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성적과 입시’(74.3%), ‘취업진로’(1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생활정도에 따라서는 대체로 ‘성적과 입시’를 우선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인 비율과 비슷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생활 정도가 상층인 경우 ‘성적과 입시’가 63.4%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성문제’(17.1%), ‘불량배의 협박’(9.8%)으로 나타났고, 중층인 경우 ‘성적과 입시’(70.0%), ‘취업진로’(8.9%), ‘불량배의 협박’(6.7%) 등으로 나타났으며, 하층인 경우 ‘성적과 입시’(50.0%), ‘취업진로’(19.2%), ‘이성문제’와 ‘불량배의 협박’이 각각 11.5% 나타났다.

다음 성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 남학생의 62.2%가 ‘성적과 입시’를 가장 많

<표 24> 청소년의 당면 문제

단위 : 명(%)

구 분		성적 입시	이성 문제	교우 문제	불량 배	가정 문제	외모 문제	건강 문제	취업 진로	계	d.f	χ^2
성별	남학생	148 (62.2)	23 (9.7)	9 (3.8)	24 (10.1)	2 (0.8)	6 (2.5)	1 (0.4)	25 (10.5)	238 (100)	7	17.408*
	여학생	182 (74.3)	12 (4.9)	5 (2.0)	11 (4.5)	5 (2.0)	11 (4.5)	0 (0.0)	19 (7.8)	245 (100)		
학교	중학교	133 (61.0)	22 (10.1)	8 (3.7)	33 (15.1)	7 (3.2)	8 (3.7)	0 (0.0)	7 (3.2)	218 (100)	7	67.044***
	고등학교	197 (74.3)	13 (4.9)	6 (2.3)	2 (0.8)	0 (0.0)	9 (3.4)	1 (0.4)	37 (14.0)	265 (100)		
생활 정도	상	26 (63.4)	7 (17.1)	1 (2.4)	4 (9.8)	0 (0.0)	1 (2.4)	0 (0.0)	2 (4.9)	41 (100)	14	18.303
	중	291 (70.0)	25 (6.0)	13 (3.1)	28 (6.7)	6 (1.4)	15 (3.6)	1 (0.2)	37 (8.9)	416 (100)		
	하	13 (50.0)	3 (11.5)	0 (0.0)	3 (11.5)	1 (3.8)	1 (3.8)	0 (0.0)	5 (19.2)	26 (100)		
보호자 학력	중졸	34 (61.8)	3 (5.5)	2 (3.6)	5 (9.1)	0 (0.0)	1 (1.8)	1 (1.8)	9 (16.4)	55 (100)	21	28.610
	고졸	170 (70.5)	23 (9.5)	6 (2.5)	13 (5.4)	4 (1.7)	7 (2.9)	0 (0.0)	18 (7.5)	241 (100)		
	대졸	103 (67.3)	9 (5.9)	5 (3.3)	14 (9.2)	3 (2.0)	5 (3.3)	0 (0.0)	14 (9.2)	153 (100)		
	대학 원졸	23 (67.6)	0 (0.0)	1 (2.9)	3 (8.8)	0 (0.0)	4 (11.8)	0 (0.0)	3 (8.8)	34 (100)		
보호자 직업	농업	31 (67.4)	3 (6.5)	2 (4.3)	3 (6.5)	1 (2.2)	2 (4.3)	0 (0.0)	4 (8.7)	46 (100)	42	34.185
	공업	11 (68.8)	2 (12.5)	0 (0.0)	3 (18.8)	0 (0.0)	0 (0.0)	0 (0.0)	0 (0.0)	16 (100)		
	상업	53 (70.7)	5 (6.7)	3 (4.0)	4 (5.3)	2 (2.7)	0 (0.0)	0 (0.0)	8 (10.7)	75 (100)		
	자영	66 (68.0)	9 (9.3)	3 (3.1)	3 (3.1)	1 (1.0)	4 (4.1)	0 (0.0)	11 (11.3)	97 (100)		
	공무원	77 (72.6)	5 (4.7)	1 (0.9)	10 (9.4)	2 (1.9)	2 (1.9)	0 (0.0)	9 (8.5)	106 (100)		
	회사원	48 (64.0)	7 (9.3)	4 (5.3)	6 (8.0)	1 (1.3)	4 (5.3)	1 (1.3)	4 (5.3)	75 (100)		
	기타	44 (64.7)	4 (5.9)	1 (1.5)	6 (8.8)	0 (0.0)	5 (7.4)	0 (0.0)	8 (11.8)	68 (100)		
계		330 (68.3)	35 (7.2)	14 (2.9)	35 (7.2)	7 (1.5)	17 (3.5)	1 (0.3)	44 (9.1)	483 (100)		

*** $p < .001$, * $p < .05$

이 꼽고 있고, 다음으로 ‘취업진로’(10.5%), ‘불량배의 협박’(10.1%), ‘이성문제’(10.1%)로 응답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74.3%가 ‘성적과 입시’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당면한 문제에서 남학생은 ‘성적과 입시’ 다음으로 ‘취업과 진로’를 선택하고 있고, 여학생은 ‘성적과 입시’ 다음으로 ‘이성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는 유의 수준 $p < .001$ 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학력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적과 입시’ 다음으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 ‘취업과 진로’(16.4%)의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대학원졸인 경우 ‘취업과 진로’(8.8%) 보다는 ‘외모문제’(11.8%)를 당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보호자 직업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직업에 관계없이 ‘성적과 입시’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직업별로 상업(10.7%)과 자영(11.3%)에서 취업과 진로를 응답한 반면 상업인 경우는 ‘이성문제’와 ‘불량배의 협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급별에서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성숙도와 사회경험 정도,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하므로써 청소년의 제반 특징을 이해하며 학생들에게는 자기이해를 돕고 교사와 부모들에게는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지도와 교과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생활 영역과 가정생활 영역, 그리고 사회생활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조사하고 이러한 가치관이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 급별, 그리고 보호자의 생활정도,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직업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주시 지역에서 483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으로 ‘인격’이 42.4%로 가장 높으며 ‘정직’과 ‘성실’이 37.9%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결과에서는 ‘덕망과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49.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신체적 건강’(29.0%)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행동에 대한 결과에서는 ‘돕는다’가 35.2%이며, ‘연락을 취한다’가 34.2%이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27.5%에 이르고 있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반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편법에 대한 태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절대 편법을 쓰지 않겠다’는 반응이 22.4%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에서는 ‘대학교’가 50.1%로 가장 높으며, ‘고등학교’는 3.5%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하여 교육

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높았다.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이유에서는 ‘자아실현’이 26.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자기계발’(23.4%), ‘출세’(2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의 기준과 조건에서는 ‘장래성’과 ‘자기발전성’이 65.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안정성’과 ‘사회적 기여도’ 및 ‘보람’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64.4%이상은 가정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불만을 느끼는 경우는 15.6% 정도이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순종한다’가 64.4%로 가장 높으며,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가 6.2%이다. 그러나 ‘대체로 반항한다’도 9.7%나 되었다.

부모의 자녀교육 방식에 대한 태도에서는 ‘민주적이다’가 46.6%로 가장 높고, ‘과잉 보호적이다’ (21.9%)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조사결과 우리사회의 건전성이 ‘매우 퇴폐적’이라는 반응이 15.5%이며, ‘나소 퇴폐적이다’가 60.9%로서 전반적으로는 퇴폐적이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 사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부패’가 3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열입시’(27.7%), ‘사회적인 폭력과 범죄의 증가’(17.0%)와 ‘가치관의 혼란’(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에서는 ‘계승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가 49.6%로 가장 많고 ‘매우 우수하다’가 15.3%로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요인은 ‘권위주의’가 40.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부조리’와 ‘황금 만능주의’였다.

현대사회의 금전만능 풍조에 대한 태도에서는 ‘사회적 안정을 해친다’가 5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25.1%로 나타나 대체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성취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기노력’이 42.4%로 가장 높고 ‘연줄배경’(18.0%), ‘개인능력’(16.8%)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출세의 원인을 개인 내부적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다.

경제문제에 대한 결과는 ‘빈부의 격차’가 4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소비’(39.8%)와 ‘향락퇴폐’(10.6%)의 순서로 나타났다.

청소년 문제를 유발시킨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결과에서는 ‘약물복용’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반항과 거부감’(23.4%)과 ‘폭력가담’(20.7%)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는 학교성적과 대학입시가 68.3%로 가장 높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과 고등학생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개인 생활 영역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인격, 그리고 정직과 성실을 중요조건으로 의식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학생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경제적 부유함보다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에서는 무조건 돕는다보다는 연락을 해줌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직업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자기계발과 장래발전성을 가장 중요한 선택준거로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아 대학이상의 수준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교육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에 대한 만족도와 부모님에 순종의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부모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는 무조건 순종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순종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의 자녀교육태도에 대해서는 권위적이라는 인식보다는 민주적이면서도 과잉 보호

적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에게서 더 잘 나타났다.

넷째, 오늘날 우리 사회현상과 당면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대체로 퇴폐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당면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치부패 현상을 교육입시제도보다 높게 인식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성세대의 불만스러운 것으로 권위주의를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으며, 현대의 황금만능주의가 사회안정을 해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문화는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경제일반에 대한 가치로서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경제문제로서 빈부의 격차를 꼽았으며, 경제적 부를 축적한 재벌들에 대해서는 자기능력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다음으로 연줄 및 배경이라고 인식함으로서 사회현실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여섯째, 청소년들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약물복용, 반항과 거부감, 폭력행위가담을 지적하고 있다. 약물복용의 문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와 학교성적을 당면문제로 나타난 결과와 연계시켜 볼 때, 청소년기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반항적인 특징과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 의식이 학교 공부라는 강박관념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고찰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권위의식을 싫어하며,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과 형식주의를 싫어하는 등 동일한 결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제주시 중·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치관 교육은 학교교육 뿐 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교육기관, 매스콤을 통해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관련기관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고영복(1977), 「현대사회심리학」, 법문사.
- 교육부(1997), 「청소년 백서」, 정문사.
- 김광일(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김용호(1975), “한국학생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집」,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인자, 황응연(1974),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사회연구문제 연구소
-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아청(1987),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 박용현(1970), 「제도화 가치관의 연구」, 배영사
- _____ (1981), 「학업성취의 요인」, 교육출판사.
- 서울 청소년회관(1980), “청소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 송명자(1995), 「발달 심리학」, 학지사.
- 안영익(1992),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가치관,”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병주(1990), “고교생과 학부모의 가치관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차선(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춘제(1994), 「청소년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임희섭(1980), “청소년문화의 현상과 전망,” 「하계 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정세구(1988), 「가치·태도 교육의 이론과 실제」, 영문사.
- 정원식(1975),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 재근섭(1993), “청소년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석연(1977),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 표갑수(1986), “청소년의 의식과 바람직한 청소년상,” 「사회과학 논총」, 제4집.
- 한국청소년 문제연구소(1985), 「청소년 문제와 교육」

<Abstract>

A Study on the Values of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Kim, Ku Ha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various characters of juveniles, to help teenage students comprehend themselves, and to provide teacher and parents with basic guide to both living and studying of the students with the survey and the analysis of the value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iding in Cheju.

Four hundred and eighty three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were surveyed about the values in their private, family, and social life.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n response to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life, the students place "personalit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life(42.4%), followed by "honesty & sincerity"(37.9%). The students believe that the happiest person is ones who are respected due to their moral influences and personalities(49.3%). Physical health is the second factor for happiness for the students(29.0%).

In the variables of educational expectation, 50.1% of the students choose 'university', and 3.5% 'high school' as their high level of education. This shows most of the students wish to have higher education than university level and their educational expectation is quite high.

In the variables of standards and conditions of their future jobs, the

students put 'potentials' and 'self-development' on the first place(65.4%), followed by 'stability', 'contribution to the society', and 'self-fulfilment'.

In terms of the satisfaction from family, more than 64.4% of the students tend to be satisfied and about 15.6% of the students are not.

The students have a negative perspective of the society with 15.5% response as 'very corrupted' and 60.9% as 'corrupted to some degree' about soundness of the society.

In regard to economical success factors, 'self-efforts'(42.4%), 'connections'(18.0%) and 'self ability'(16.8%) are in order respectively, showing students tend to think economical success are attributed by mainly personal factors.

'Drug or substance use' takes the first place as a possible factor to cause juvenile delinquency(24.2%), followed by rebel & rejection'(23.4%) and 'joining a violent gang'(20.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ir private life, juveniles consider personality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wards life, and as important characters, honesty and sincerity are counted. This tendency appears to be particularly strong with female students. The students count moral influence and social respect as a main factor to feel happy rather than economical wealth.

Second, in the variables of standards and conditions of their future jobs, the students put 'potentials' and 'self development' on the first place. Their educational expectation is fairly high, pursuing higher than university level education. Male students emphasize social success and money, but for female students, self-development and self-realization are counted as important.

Third, the students appear to be satisfied with their family life and to obey their parents well. However, they don't agree to the idea of unconditional obedience to their parents. They obey to their parents or don't depending on what they think on the matter. With regard to their parents' attitude to home training, the students consider their parents are democratic and over-protecting rather than authoritarian. Male students appear to consider this way more than the opposite.

Fourth, juveniles perceive our society as overall corrupted, and perceive that political corruption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Korea among current issues. They even think political corruption is more serious than failing education system. Authoritarianism is the most dissatisfying character of the older generation, and modern mommonism does harm in social stability, they believe.

Fifth, in the variables of general economy, the youth count the gulf between rich and poor as the worst economic problem in the modern society. Although they attribute the economic success of Korean conglomerates to self-efforts, they still view connections or pulls as the second important success factor in economic fields. This result shows that the youth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to the society.

Sixth, the students point drug/substance abuse, rebel and rejection and joining a violent gang to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ies. Drug and substance abuse is more serious with high school student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is can be related to the notorious social syndrome of university entrance which causes both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be obsessed with higher and better school grades to enter so-called better universities.

As conclusion, more continuous and extensive studies abou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 are needed, and building a wholesome values among the youth should be planned and practiced not only through public education but also through home training, social agencies and mass media with a systematic programs in a spontaneous atmosphere.

<부록>

질 문 지

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발달과 의식 구조를 조사하여 올바른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여러분의 학교나 개인 신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제시된 내용들은 컴퓨터로 통계 처리되어 오직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9년 12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김 구 하 드림

※ 다음 설문을 읽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골라 ()안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권력 () ② 명예 () ③ 학식 ()
④ 인격 () ⑤ 정직과 성실 () ⑥ 사회봉사 ()

2. 현대사회와 같은 금전 만능의 풍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안정을 해친다 () ② 전통미풍을 저해한다. ()
③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3.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봅니까?

- 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
②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
③ 덕망과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
④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

4. 여건이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 ② 대학교 ()
③ 대학원 석사 () ④ 대학원 박사 ()

5.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사회적 출세를 위하여 ()
- ②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
- ③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
- ④ 내적 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
- 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려고 ()
- ⑥ 능력과 자질 함양을 위하여 ()

6.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된 사람들의 개인적 경제 성취 및 출세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부모의 유산 때문에 () ②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
- ③ 꾸준한 자기 노력으로 () ④ 학벌이 좋아서 ()
- ⑤ 연줄 및 배경이 좋아서 () ⑥ 운이 좋아서 ()

7. 우리 나라가 당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과소비 () ② 부동산 투기 () ③ 빈부 격차 ()
- ④ 무역적자 () ⑤ 향락퇴폐 산업 번창 ()

8. 기성 세대의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사회 향락 () ② 황금만능주의 () ③ 폭력주의 ()
- ④ 권위주의 () ⑤ 사회적 부조리와 범죄행위 ()

9. 직업선택의 준거 및 요건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① 보수 () ② 안정성 ()
- ③ 장래성 및 자기 발전성 () ④ 사회기여도 및 보람 ()
- ⑤ 시간 여유 및 근무요건 ()

10. 직업 선호에 있어서 고되고 힘들며 지저분한(3D현상)직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보수 낮은 사부실 () ② 보수는 높으나 위험한 일 ()
- ③ 보수는 높으나 힘든 노동일 () ④ 보수는 높으나 지저분한 일 ()

11. 급한 불일을 보러 가던 중 길가에서 아파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돕지 않는다. () ② 연락이나 해준다. ()
- ③ 무조건 돕는다 () ④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

18. 학생의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 ① 권위적이고 엄격하다. () ② 과잉 보호적이고 간섭적이다. ()
③ 민주적이다. () ④ 무관심하고 방임적이다. ()
⑤ 일관성이 없다. ()

19. 현재의 가정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만족하다. () ②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다소 불만이다. ()
⑤ 매우 불만이다. ()

20.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어느 나라 보다 매우 우수하다. () ② 훌륭하여 제송할 가치가 있다. ()
③ 별로 우수한 것이 없다 () ④ 부끄럽게 느껴진다. ()
⑤ 잘 모르겠다 ()

21. 오늘날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 만 고르시오

- ① 성적과 입시 () ② 이성문제 ()
③ 교우문제 () ④ 불량배의 공갈과 금품갈취 ()
⑤ 가정문제 () ⑥ 외모와 신체조건 ()
⑦ 건강문제 () ⑧ 취업 및 진로 ()

22. 성 별 · ① 남 ()

② 여 ()

23. 학 교 · ① 중학교 ()

② 고등학교 ()

24. 학 년 · ① 1 학년 ()

② 2 학년 ()

25. 생 활 정 도 · ① 상 ()

② 중 ()

③ 하 ()

26. 보호자 학력 : ① 중졸 ()

② 고졸 ()

③ 대졸 ()

④ 대학원졸 ()

27 보호자 직업 ① 농업 · 어업 · 목축업 ()

② 상업 ()

③ 공업 ()

④ 공무원 ()

⑤ 회사원 ()

⑥ 자영 ()

⑦ 기타 ()

※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